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나이티드 몰게지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중영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세계와 만나는
창
The Korea Daily
"미국의 중심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1166호

Tuesday, November 5, 2024 A

선택 2024, 미국과 세계의 미래가 오늘 결정 난다

SPECIAL STORY

대통령 선거 본투표 실시
경합주 결과가 관건
여론조사서 '트럼프 박빙 우위'

미국 제 47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의 날이 밝았다. 미국은 물론 전세계의 미래가 달려 있는 선거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맞붙는 이번 '승부'는 미국 대선 역사상 가장 많은 선거자금이 투입됐고, 가장 치열한 여론조사 결과들이 도출된 선거다.

두 후보의 차이는 극명하다. 각자가 만들어 나야겠다고 천명한 미국에 대한 청사진은 명백히 다르다. 이런 미래를 각 후보를 지지하는 미국민의 투표수가 아닌 단 몇 개 경합주 선거 결과로 판가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나 그것이 미합중국 헌법이 정의한 미국의 대통령 선거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조만간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원조를 중단하는 것을 공약으로 한 트럼프 2기 정부는 양국가의 휴전을 유도하고 지속되는 이스라엘-



3일 미시간주의 미시간주립대학에서 유세하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해리스는 이날 미시간에서만 3차례 유세를 이어갔다. 오른쪽은 같은 날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유세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그는 대선 마지막 3일간 4차례 노스캐롤라이나를 방문한다. [AFP.로이터-연합뉴스]



3일 미시간주의 미시간주립대학에서 유세하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해리스는 이날 미시간에서만 3차례 유세를 이어갔다. 오른쪽은 같은 날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유세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그는 대선 마지막 3일간 4차례 노스캐롤라이나를 방문한다. [AFP.로이터-연합뉴스]

이란 간 전면전 위기도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바이트노믹스'를 전면 중단하고, 인플레이션 해법을 통한 경제 상승도 이끌겠다고 밝혔다. 불법 이민자는 내쫓고, 국경 장벽은 견고해지며, 주한 미군의 지속적인 주둔 여부도 불확실해진다.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마우나 고우나 지금까지 이어온 '바이트노믹스'의 각종 정책을 일부 수정하거나 전면 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리스는 '민주주의'를 강조한다. 해리스의

가장 큰 공약은 사실상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투표하는 유권자들이 해리스가 대통령으로 적격이기 때문에 뽑겠다는 이들보다 많다"고 일부 정치관계자들은 분석한다.

이번 대선은 진영 투쟁을 가장한 역사상 가장 치열한 계급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다. 민주당 내 급진 진보 성향 그룹으로 분류되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선거 승리를 위해 부시 가문, 디케이니 전 부통령 등으로 대변되는 '공

화당 네오콘' 극보수 그룹과 손잡았다. 정통 보수가 아닌 '마가(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장악한 공화당은 진보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대선후보와 전 민주당 대선후보 톨시 가바드 전 의원, 그리고 혁신의 아이콘으로 전세계 최고 부자에 등극한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와 뭉쳤다. 이 전쟁에서 여성이자 유색인종인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엘리트 계급'을 대표하며 백인 재벌 출신도

널드 트럼프는 '무산 계급'을 대변한다. 아이러니 하다.

해리스 후보에게는 거의 모든 거대 미디어들의 지지가 모였다. 트럼프에게 모인 것은 종교계, 보수 성향의 소셜미디어, 그리고 현실에 분노하는 20,30대 남성들이다.

누가 이번 대선에서 선택될 것인가. 승자를 예측하기 역사상 가장 힘든 선거다. 여론조사는 마지막 날까지 오락가락했다. 정치전문 매체 더힐과 에머슨대가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진행해 4일 공개한 7대 경합주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선거인단 19명)와 노스캐롤라이나주(선거인단 16명)에서 각각 49% 대 48%, 조지아주(선거인단 16명)에서 50% 대 49%, 애리조나주(선거인단 11명)에서 50% 대 48%로 각각 해리스 부통령에 앞섰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시간주(선거인단 15명)에서 50% 대 48%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앞섰고, 네바다주(선거인단 6명)와 위스콘신주(선거인단 10명)에서는 두 후보가 48%(네바다)와 49%(위스콘신)로 동률을 기록했다.

박세용 기자 >> 2면 '선택2024'로 이어집니다

한국여권 영주권자, 중국 무비자 입국

중국이 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15일 이내 무비자 시범 정책을 시행한다. 의류 및 물류 사업 등으로 중국 방문이 잦은 한인 영주권자 편의도 개선될 예정이다.

지난 1일(한국시간) 중국 외교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8일부터 한국 등 9개국을 무비자 시범 정책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한국 국적인 한인 영주권자 등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과 외국인의 왕래를 더욱 편리하게 하기 위해 중국은 무비자 국가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상 중국 정부는 비자면제 조치를 연말 연장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 국적자 대상 비자면제는 상시조치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 12월 독일·프랑스 등 6개국을 대상으로 일방향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 20여 개국으로 확대했다.

한국은 중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제주도에 한해서만 30일간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대통령선거 개표방송 합니다

미주중앙일보가 '2024 대통령 선거 개표'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이번 선거는 경합주의 박빙 승부로 개표 결과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이번 방송은 워싱턴DC, 버지니아,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전국 주요 도시를 연결해 현지 상황과 개표 현황

을 보도하며, 서부와 동부의 한인 출마자들의 목소리와 득표 상황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방송은 5일 오후 9시(동부시간) 미주중앙일보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orea_Daily)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정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매입
순금 야기 물받지 않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CarePeople Home Health, Inc. Korean

언어와 문화를 배려한 세심한 관리
각 나라별 언어를 배신, 관리하는 차별화된 홈케어

Care People Home Health

케어피플 홈헬스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서비스 지역
VA-센터빌/아난데일/폴스처치/
페어팩스/뉴포트뉴스
MD-게이더스버그/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12/9-12/13 전화 예약 필수!

애난데일 사랑방 이전
(로우 코스트, 베스트케어 치과) 2층

Centreville (Main Office) 14631 Route 29, #401 Centreville, VA 20121	Annandale (사랑방) 4324 Evergreen Ln. #D (2FL) Annandale, VA 22003	Annandale (V)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Gaithersburg (MD)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	--	---	---

해리스·트럼프 지지 한인들 생각 들어보니...

‘소수계 존중’ vs ‘미국 원상복구’ 팽팽한 대립

‘해리스 지지 한인 모임’ 진 김 공동의장
‘가족 모여 아메리칸 드림’ 정책
한인사회가 바라는 것과 일치



하게 여긴다.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상황과 조건을 본다면 제 역할을 잘해냈다고 평가한다.”

“그렇다면 바이든 행정부에 국민들이 어떤 점수를 주고 있다고 보나.

“경제나 사회 상황에 대해서는 공화당원들도 나쁜 점수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바이든이 사퇴를 했지만, 문제 해결을 해왔고 성과도 충분히 냈다.”

-이민 문제는 커뮤니티마다 의견이 다르다. 해리스의 이민 정책은 한인들이 만족할 내용을 담고 있다.

“가족이 재회해 새로운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하는 것이 해리스 정부의 지향점이며 한인사회가 바라는 것과도 일치한다. 이것이 미국의 정신이다.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이민 정책을 가진 트럼프가 이민자 커뮤니티의 표를 받을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바이든 지지에서 해리스로 옮겨달라진 것이 있나. “후보 교체 이후 미국 전역에서는 마치 오바마 선거 때처럼 새로운 에너지가 솟아났다. 해리스가 새로운 정책과 접근으로 청년층과 호응할 것이라고 믿는다.”

최인성 기자

‘코리아안...포 트럼프’ 김태수 공동대표
국경·경제 생각하면 대안 없어
김정은·푸틴 제어 리더십 기대



“반반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여론조사 내용(오차범위 내 박빙)에 잘 반영된 것 같다. 결국은 무당파 유권자들이 어느 쪽에 더 표를 주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한반도 문제와 외교에서도 트럼프 집권이 효과적인가.

“김정은과 푸틴이 꾀 못 하도록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 바이든 정부의 우유부단함이 지금의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이런 문제는 트럼프가 더 잘 해결할 것이다.”

-2020년 선거 불복 탓에 트럼프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유권자도 있다.

“한 차원 높게 보면 양당이 번갈아가면서 집권했는데 이번은 공화당 집권이 필요한 순간이다. 의사당 시위 사태도 신성한 국민들의 의사 표현으로 보면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 폭동이라는 표현도 옳지 않다. 정치적 공세다.”

-5일 개표는 어디서 지켜보나.

“뉴포트 비치에 마련된 공화당 승리 파티에 함께할 예정이다. 공화당 주요 후보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함께 지켜볼 계획이다.”

최인성 기자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후보를 위해 뛰던 한인들이 있다. 후보 교체로 9월 중순에 출범한 해리스 지지 한인 모임(Korean Americans For Harris)은 활발한 온라인 활동을 통해 지지세 결집에 주력해왔다. 최근에는 앤디 김, 데이브 민 후보 등이 함께 LA에 모여 모금 행사를 열기도 했다. 다음은 진 김(샌프란시스코·사진) 공동의장과 의 일문일답.

-왜 해리스인가. “평생 민주당원은 민주당 후보만 찍고, 공화당원도 자당 후보만 찍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엔 다르다. 해리스는 우리와 같은 소수계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후보다. 트럼프는 전통적인 공화당의 이익과 당원을 대표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국민과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정치를 해온 해리스야말로 현시대 믿을 수 있고 안정적인 인물이다.”

드론 조종... 현장 즉각 출동해 요원들 눈 역할

뉴욕경찰국 레너드 박 경관



고 대공과 전술적 감시다. 교통이 복잡한 뉴욕에서는 현장에 신속히 도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드론이 즉각적인 대응에 큰 도움이 된다.

총기나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면 드론을 통해 용의자와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함으로써 지상 요원의 안전한 대응을 돕는다.

박 경관은 “드론은 지상에서 볼 수 없는 상황을 파악해 지상 요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드론은 또한 시위나 집단 충돌, 가택 연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감시 도구로 활용된다.

박 경관은 “집회나 시위 현장의 전반적 상황을 감시하고 실시간으로 통제실에 정보를 제공한다”며 “열 감지 센서를 통해 집회 참가자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름철에는 해변 지역에서 드론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진다. 뉴욕의 해변에서는 익수 사고나 상어 출몰 같은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더 큰 드론이 투입된다. 이 드론에는 상호통신 기능이 탑재돼 있어, 구조대와 바다 위 사람들 간의 음성 소통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구조 튜브를 운반해 익수자에게 전달하기도 한다.

드론 운영에는 기술적 도전 과제도 있다. 초기에는 뉴욕 고층 건물들로 인

한 GPS 반사 현상이 드론 운항에 어려움을 주었다. 이런 문제는 최근에 카메라 기반 드론이 도입되면서 해결됐다. 이제 최대 2~3마일 범위까지 안정적 통신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배터리와 비행 시간이 과제로 남아 있다.

드론은 평균 25분간 비행할 수 있으며, 2대의 드론을 교대로 사용하고 6개의 여분 배터리를 보유해 비행 시간을 극대화한다. 뉴욕 경찰의 드론은 최대 고도 400피트에서 비행할 수 있으며, 주변 공항 인근에서 제한된 높이 내에서만 운행된다.

글·사진=김경준·정윤재 기자

1면 '선택2024'에서 이어집니다

해리스 부통령을 공식 지지하는 뉴욕 타임스(NYT)와 시에나대학이 지난 달 24일부터 2일까지 7대 경합주의 투표의향 유권자를 조사해 3일 발표한 결

과(오차범위 ±1.3% 포인트)에서는 더 힐-에머슨대 조사와 정반대로 해리스 부통령이 4승2무1패의 우위를 보였다.

이 조사에서 해리스는 네바다, 노스 캐롤라이나, 위스콘신, 조지아 등 4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1~3% 포인트

차로 앞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리조나에서 4% 포인트 우세했고,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에서는 두 후보가 동률이었다.

이번 선거가 이렇게 치열하게 전개되는 또다른 이유가 있다. “인터뷰 당

면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현정권의 각종 실책도 인정치 않고, 펼쳐나갈 정책도 제대로 숙지하고 있지 않는 열띤 결에 추대된 미숙한 후보” 해리스 부통령과, “도덕적 결함 투성이며, 전 대통령 중 역사상 최초로 형사 기소됐고,

지난 선거결과에 아직까지 승복할 줄 모르는 부동산 재벌출신”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결하는 (양 진영의 열렬한 지지자 이외 ‘중도층 유권자들’에게 있어서는) “차악을 뽑는 선거”라는 특수성 때문인 것이다.

박세용 기자

워싱턴 날씨 (°F)

6일(수) 81-62	9일(토) 65-47
7일(목) 72-51	10일(일) 62-54
8일(금) 67-47	11일(월) 69-49

11월 5일(화) 76~60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오랜 경력으로 성심성의껏 팔고/사고/렌트해 드립니다.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기억 못하는 광고에 얼마를 쓰시겠어요?

You Tube

스몰 비즈니스, 유튜브 광고가 압도적인 5가지 이유

1. 건너뛰면 광고비 없다
2. 건너뛰어도 고객이 기억한다
3. 원하는 지역에서만 광고한다
4. 사업체를 눈부시게 차별화한다
5. 하루에 커피 한잔 값이면 한다

지금 전화주세요!
내 사업체의 미래를 바꾸세요~

703-337-0123

www.Intellicsystems.com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 구글 스마트 쇼핑 |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 문자마케팅 | 유튜브광고 | 소셜미디어 | 웹사이트 제작 | 온라인 쇼핑물 | 이메일 마케팅

주정부 차원 헌법 개정 주민투표 147건

VA 재산세 면제 대상 확대 MD 낙태권 보호

오는 11월 선거에서 전국 41개주에서 147건에 이르는 주 헌법 개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버지니아는 주헌법에 규정된 재산세 면제 대상을 전사한 군인의 생존 배우자에서 임무 수행 중 순직한 모든 참전 군인의 생존 배우자로 확대하는 조항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헌법개정안은 글렌 영킨 주지사가 주도한 것으로, 초당적인 합의로 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

버지니아는 이밖에도 각 카운티와 시 정부 교육 및 경찰 예산 지원을 위한 공채발행안 등 모두 400개 이상의 지역정부별 주민투표를 진행한다.

메릴랜드는 의회 법률로 보호받는 낙태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승격시키는 조항에 대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다. 메릴랜드는 이밖에도 각 지역정부별로 100개 이상의 주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 47개주 헌법 개정 주민투표안 147개 중 주의회의 헌법개정안 표결을 거친 안건은 77개, 주민발의에 의한 청



원은 57개였다. 메릴랜드 외에도 애리조나, 네바다, 몬태나, 플로리다 등 10개주가 낙태권 보호 관련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메릴랜드 등은 이미 법률로 낙태권을 보호하고 있으나 주의회 다수당이 바뀔 경우를 대비해 헌법 수정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네브라스카는 완전한 형태의 낙태권 보장 조항과 임신 초기에 국한된 낙태권 보장 조항 등 두개의 상반된 주민투표안이 올라와 유권자들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39개 헌법 개정 주민투표는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것이다. 전국 50개주는 모두 연방법에 의해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 헌법개정 주민투표는 주헌법에 관련 내용을 명기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투표 발의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헌법 개정안도 주민투표에 회부된다. 애리조나는 전체 주민의 1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주민투표를 청원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이미 24개주가 오락용 혹은 의료용 마리화나를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플로리다, 네브라스카, 노스 다코타, 사우스 다코타가 주민투표로 허용 여부를 묻는다. 애리조나는 불법체류자 검거와 추방 정책 실행을 위해 연방이민 당국의 데이터베이스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최저시급을 18달러로 인상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김옥채 기자

연방의사당 철제 펜스로 둘러싸져

연방의사당경찰국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단체의 폭력시위에 대비해 연방의사당을 철제 펜스로 둘러쌌다.



연방의사당 경찰국은 2천명 이상의 정규 인력을 총동원하는 한편, 모든 연방정부 법집행 기관과 공조해 시위 대비 작전 계획을 수립했다.

비밀경호국(SS) 등은 최근 수년 동안 정치인 테러위협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2차례나 발생하는 등, 대선 이후 폭동 수준의 시위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관저인 매사추세츠 예비뉴 선상의 내이벨 읍 자버토리도 폭력 시위 대비용 철제 펜스가 이중으로 둘러싸졌다. 백악관도 경호 최고등급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투표일 심야에 머물며 개표를 지켜보는 장소인 워싱턴DC 하워드 대학과 플로리다 팜 비치 컨벤션 센터도 이중 삼중의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연방의사당경찰국과 SS는 내년 1월6일 소집될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일과 1월20일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진 시위진압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국에서는 이 기간 외에도 투표일 이후 일주일 이상 테러나 대규모 시위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박세용 기자

두번 투표하려던 용의자, 결국 무죄

버지니아에서 투표를 두번이나 하려고 시도했던 유권자가 결국 재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버지니아 벨스 카운티 순회법원 배심원단은 피고 리차드슨 카터 벨 주니어(67세)가 투표기계의 부정 개입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투표를 두번 시도했다는 진술을 받아들여 무죄평결을 내렸으며 판사가 이를 받아들였다.

피고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로 지난 2023년 11월4일 버지니아 총선 조기투표에 참여하고도 11월7일 본선거일에 다시 투표하려다가 적발돼 기소됐다.

피고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두번째 투표를 할때 ID를 제시했으나 검표 시스템은 이미 투표한 유권자로 판명났다.

투표소 직원은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으나, 피고는 "투표 시스템 자체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선거부정 행

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를 직접 확인하려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에게 6급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6급 중범죄는 최대 5년 형이 가능하다.

검찰은 "피고가 투표시스템을 감시할 수 있는 직책이 없기 때문에 명백한 선거부정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고 측은 "두번 투표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그를 조사한 모든 사람들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피고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로, 자신을 변호했던 로펌 페이스북에 MAGA(미국을 더욱 위대하게) 모자를 쓴 사진과 "모든 혐의가 무죄로 판명났다"는 메시지를 게시했다. 그는 2022년 자신의 트럭에 "메리크리스마스, 많이 쓰고 적게 벌어가세요. 조 바이든 드림"이라는 광고문구를 달고 다녀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옥채 기자

시민단체들 "선거홍보물로 유권자 협박?"

MD 법무부, 중지명령 내려

일부 비영리단체가 선거 독려를 핑계로 유권자를 겁박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영리단체 유권자정보센터와 유권자참여센터가 최근 메릴랜드 유권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발송한 홍보물에는 해당 유권자의 이름과 주소, 최근 4번의 선거에 참여했는지 등의 여부가 기재돼 있었다. 또한 이웃주민 두명이 투표를 했는지 여부도 적혀 있었다.

이들은 해당 유권자가 5일 선거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문구

도 포함시켰다. 탐 포퍼치 유권자정보센터 대표는 "우리 단체는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앤소니 브라운 메릴랜드 법무부 장관은 "이들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우편물 발송 중지 명령을 하달했다"면서 "선거참여를 명분으로 커뮤니티를 위협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메릴랜드 법무부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위법성 여부를 따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기소가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메릴랜드 선거법상 특정 유권자가 투표 여부에 대한 기록은 공공기록이기 때문에 공개가능한 정보다. 다만 해당 유권자가 누구를 찍었는지는 공개할 수 없는 사적정보일 뿐이다.

메릴랜드 선거위원회는 유권자 등록 정보 등은 125달러만 지불하면 누구든지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권자정보센터 등은 메릴랜드 법무부가 실정법을 무시하는 조법적인 발상으로 비영리단체를 탄압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김옥채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옴니!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올나하제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광고는 때때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너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너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교통사고 / 개인파산 전문 신성재 변호사

“ 교통사고 최대보상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저희에게 대충 합의란 없습니다. ”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재검표·불복 등 변수... 승자확정 시간 걸릴수도

Q&A로 본 개표 시나리오

미국 대선은 5일 0시(현지시간, 한국시간 5일 오후 2시) 뉴햄프셔주의 작은 마을 '딕스빌 노치'에서 본투표의 막이 오른다. 카멀라 해리스와 도널드 트럼프 두 후보가 7대 경합주(조지아·노스캐롤라이나·애리조나·펜실베이니아·미시간·애리조나·위스콘신·네바다)에서 초접전을 벌이는 데다, 주별 개표 절차가 제각각이어서 백악관 주인이 누구지 아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편 투표와 재검표, 선거 불복 등의 변수도 상존한다.

Q. 대선 결과 언제 나오나.

-2020년 대선에선 선거 후 나흘째에 조 바이든의 당선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엔 더 늦어질 수 있다. 3일 기준 3534만 명의 유권자가 한 우편 투표가 관건이다. 7대 경합주 중 네바다를 제외하면 5일까지 도착하는 우편 투표지를 개표 집계로 반영한다. 네바다는 우편 소인이 5일까지 찍혀 있으면 9일 도착분까지 반영한다. 또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은 다른 5개 주와 달리 우편 투표 개표를 대선 당일 시작한다. AP통신은 애리조나에선 개표 완료가 가장 13일 걸릴 것으로 봤다. 우편 투표가 중요한 개표 초반에 선두를 달리는 후보가 우편 투표 개표 후 추월당할 수 있어서다.

Q. 재검표 변수는 없나.

-개표가 완료돼도 끝이 아니다. 전미 주의회협의회(NCSL)에 따르면 41개 주에선 주에서 정한 근소한 표차 기준 이내로 승부가 나면 패배 후보 요청 등



카멀라 해리스 지지자들이 3일(현지시간) 미시간주 유세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A new way forward)'이라고 적힌 팻말을 든 채 환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대선 결과 언제쯤?

애리조나 개표, 최장 13일 예상
4년전엔 투표 나흘뒤 승리 소식

트럼프 선거 불복?

'마가' 동원해 불복활동 가능성
경합주에 10만명 배치해 감시

으로 재검표가 가능하다. 위스콘신과 네바다에선 재검표 제한 요건이 사실상 없다. 여론조사대로 두 후보가 박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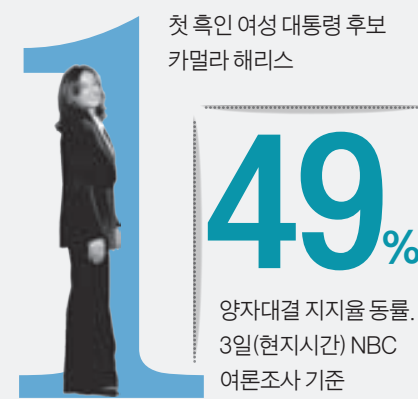
의 득표율을 기록하면 경합주에서 진행될 재검표로 결과 발표가 늦을 게 확실하다. 2000년 대선 상황이 재연될 가

능성도 있다. 당시 경합주였던 플로리다에서 0.5%포인트 차로 득표율이 나오자 민주·공화당이 재검표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다 35일 만에 당선인이 확정됐다.

Q. 트럼프의 선거 불복 가능성은...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2020년 선거 사기 행위 반복된다"는 의혹을 제기 중이다.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활동가를 동원한 불복 활동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RNC)와 트럼프 캠프는 지난 4월 '선거 무결성(integrity)' 프로그램을 결성했다. 경합주에 10만 명의 자원봉사자·변호사를 배치해 선거에 '결함'이 생겼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 제기과 소송으로 결과를 바로잡겠다는 생각이다.

숫자로 본 2024 미국 대선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538명)
과반 대통령 당선 위한 매직넘버



당선시
재선 실패 후
다시 집권한
역대 두 번째
대통령

주요 경합주 7곳.
펜실베이니아·미시간·
위스콘신·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

7800만 명

1억8650만

이번 대선 등록된 유권자 수

해리스, 우편 사전투표... 트럼프, 또 선거사기 거론

대선을 이틀 앞둔 3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경합주를 중심으로 막판 표심 모으기에 나섰다.

AFP통신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우편을 통해 대선 사전투표를 마쳤다고 밝혔다. 해리스는 경합 지역인 미시간주의 한 흑인 교회를 방문해

연설한 뒤 "사실 방금 우편 투표용지를 작성해 투표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어 "기도로는 충분하지 않다. 행동해야 한다"며 지지자를 호소

해리스 "기도로 불충분, 행동해야"
트럼프 "난 백악관서 안 나왔어야"

했다. 플로리다대 선거연구소 집계 결과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는 2일 기준 7800만 명(등록 유권자 수 1억8650만 명)을 넘어설 만큼 열기가 뜨겁다.



DARCARS®

LEXUS OF SILVER SPRING

실버스프링 렉서스에서 최고의 딜을 만나십시오.

Huge Selection of New and Certified Pre-Owned Vehicles

SALES | 301-234-8525 SERVICE | 301-234-8583 PARTS | 301-235-1016

2505 Prosperity Terrace, Silver Spring, MD 20904

DARCARS.com

7대 경합주, 1%P 초박빙 승부... "누구도 결과 장담 못해"

종합, 퓨리서치센터
7곳
일까지
사전투표자 수,
미 플로리다대
선거연구소 집계
만명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들이 3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유세에서 '트럼프가 바로잡을 것이다(Trump will fix it)'라고 적힌 팻말을 흔들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여론조사 안잡힌 숨은표가 관건 사전투표 열기속 7800만명 돌파 두 후보 모두 경합주 막판 공략

5일 미국 역사상 가장 치열한 대접전으로 평가받는 제47대 대통령선거의 막이 오른다. 50개 주와 수도 워싱턴DC에 인구 비례로 할당된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 270명을 확보하면 승리한다. 1억8650만 미국 등록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사상 첫 흑인 여성 대통령이 탄생할 수도, 재선에 실패한 후 다시 대통령이 된 역대 두 번째 대통령이 등장할 수도 있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이목이 대선 결과에 쏠리고 있다.

판세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안갯속이다. 대선을 이틀 앞둔 3일 기준 리얼클리어폴리틱스·270투윈·538·뉴욕타임스·더힐 등 주요 선거 분석 사이트 5곳의 7대 경합주 지지율 평균 수치는 미세하게나마 '트럼프 박빙 우세'를 가리킨다. 하지만 격차는 대부분 1%포인트 안팎으로 오차범위 내여서 누구도 우위를 장담하기 힘들다. 선거 막판 해리스 부통령 지지층의 결집세가 뚜렷하고 10월 초 지지율 골든 크로스 이후 승기를 잡는 듯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세가 추종하면서 다시 혼조세 양상이다.

여기에 두 후보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텃밭'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북동부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는 해리스, 남부 선벨트(일조량이 풍부한 지역)는 트럼프가 유리했던 기존 구도에 막판 균열이 생길 조짐을 보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지난 9월 해리스 지지 공식 선인)와 시애틀대가 지난달 24일부터 2일까지 7개 경합주 투표 의향 유권자를 조사해 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해리스는 러스트벨트 중 위스콘신(해리스 49%-트럼프 47%), 선벨트 중 노스캐롤라이나(48%-46%)·조지아(48%-47%)·네바다(49%-46%) 등 4곳에서 트럼프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트럼프는 선벨트 중 나머지 한 곳인 애리조나(트럼프 49%-해리스 45%)에서만 우위를 기록했고, 러스트벨트 중 두 곳 펜실베이니아(48%-48%)·미시간(47%-47%)에서는 둘이 동률이었다.

이번 조사는 7개 경합주 총 7879명(주별 오차범위는 ±3.5%포인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해리스의 경우 과거 민주당 강세 지역인 '블루 월'(민주당 장벽)로 불렸고 이번 대선에서도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러스트벨트 중 두 곳(펜실베이니아·미시간)에서 트럼프에게 추격을 허용하며 승리를 자신하기 힘든 상황이 된 점이 눈에 띈다. 반면에 트럼프는 지금까지 우세한 것으로 판단됐던

선벨트 수성에 직진호가 커졌다. 선벨트 4곳 중 3곳에서 해리스에게 추월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으로 분류되지만 이번 대선에서 결집도가 다소 떨어지는 듯했던 흑인·히스패닉이 선거가 임박하면서 해리스로 뭉친 결과로 분석된다.

경합주 텃밭 구도에 균열을 낸 주된 요인은 선거 막판 부동층의 표심. '최근 며칠 안에 지지 후보를 결정했다'는 유권자의 58%는 해리스를 택한 반면 트럼프 지지는 42%에 그쳤다. 주별로 보면 해리스는 선벨트에서 66%-34%로 32%포인트 앞섰고, 트럼프는 러스트벨트에서 60%-40%로 20%포인트 앞섰다.

'해리스의 선벨트 약진, 트럼프의 러스트벨트 선전'으로 요약되는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NYT는 "확실한 우위 없이 오차범위 내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건 승부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관건은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은 '사이 트럼프'와 '히든 해리스' 등 숨은 표의 규모다. 공화당 텃밭으로 여겨졌던 아이오와에서 전날 해리스가 트럼프를 3%포인트 차로 앞선다는 깜짝 조사 결과가 나온 것도 그동안 포착되지 않았던 백인 여성 중심의 '히든 해리스' 지지자들이 막바지에 결집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이 트럼프'가 더 큰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공개된 NYT 조사에서 백인 민주당원의 응답률이 백인 공화당원보다 1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지지층에 대한 과소평가 가능성이 여전히 상당하다는 의미다. 사전투표자 수는 이날 오후 9시 기준 7800만 명을 넘어섰다. 우편 투표 3534만여 명, 현장 투표 4265만여 명을 합친 수치다.

두 후보는 선거일 전 마지막 3일을 공히 흔들리는 텃밭을 지키고, 경합주를 공략하는 일정으로 켜졌다. 해리스는 3일 하루 일정을 모두 투입해 미시간(선거인단 15명)에서 3차레나 유세를 했다. 노스캐롤라이나(16명)·조지아(16명)를 거쳐 펜실베이니아(19명)에서 선거 캠페인의 종지부를 찍는다. 선거인단 226명을 확보했다고 평가되는 해리스가 만약 미시간에서 패한다면 러스트벨트 3개 주 석권(44명)을 통한 당선 시나리오가 무너질 수 있다.

트럼프는 3일 중 4차레나 노스캐롤라이나를 방문하고,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에서 유세한 뒤 4일 미시간(15명)에서 대장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재 선거인단 219명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는 트럼프가 미시간에서 승리하면 펜실베이니아를 내주더라도 노스캐롤라이나·조지아·애리조나(11명)에 배정된 선거인단까지 모두 58명을 추가해 승리할 수 있다.

위싱턴=김형구·강태화 특파원

Q. 트럼프의 불복이 2020년 대선과 다를까.
-4년 전보다 불복 운동이 거세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현직 대통령이 아닌 트럼프가 행정부 권한을 대선 불복에 동원할 수 없어서다. 하지만 SNS를 통한 허위 정보 확산과 여론전으로 인한 미국 사회의 혼란 가능성은 여전하다.
Q. 선거인단 269대 269 동점도 가능한가.
-가능하다. 경합주 중 해리스가 러스트벨트

트(미시간·위스콘신·펜실베이니아)에서 다 이기더라도, 트럼프가 선벨트(애리조나·조지아·노스캐롤라이나·네바다)에서 이기고 승자독식이 아닌 메인·네브래스카주에서 1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면 269명 대 269명으로 동률이 된다. 이러한 차기 대통령은 내년 1월 연방 하원 투표에서 결정된다. 이번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다면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높아진다. 이송호 기자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등을 찾아 '해리스 심판론'을 외쳤다. 트럼프는 바이든-해리스 정부의 불법 이민 문제 대응을 비판하며 "내가 백악관을 떠날 날 우리는 최고의 국경을 갖고 있었다"면서 "솔직히 말해 나는 (백악관에서) 나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2020년 대선에서 패배했으나 사

기라고 주장하면서 선거 결과에 불복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그들(민주당)은 이 망할 것(this damn thing, 선거 결과)을 흠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싸우고 있다"며 부정선거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는 또 이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선거에서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꽤 많이 리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승리를 호언장담하기도 했다. 서유진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 자산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유자도 행복해집니다

주책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냉·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조?

AWARDED

Porcht, HomeAdvisor, BBB

LENNOX, Carrier, TRANE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before after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미국접경 멕시코서 교전 이민자 2명 사망, 4명 부상

미국 대선 주요 화두인 '불법 이민자' 문제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국인 멕시코에서 당국 요원과 이주민 간 교전으로 사망자가 나왔다.



미국-멕시코 국경장벽에 설치된 '죽은 자의 날'(멕시코 명절) 제단. [티후아나 AFP=연합뉴스]

멕시코 국방부는 "미국 접경에서 경찰 업무를 수행하던 국가방위대원들이 총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민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멕시코 군 당국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일 오후 1시께 북부 바하칼리포르니아주 라무로사 풍력발전단지 인근 도로에서 발생했다.

이곳은 애리조나주 티투스 인접 지역으로, 미국으로 향하는 불법 이민자들의 밀입국 경로로 이용되는 곳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국방부는 "2대의 차량 내 탑승자들이 먼저 방위대원을 향해 총을 쏘며 공격하고 도주하려 했다"며, 해당 차량에서 총기를 비롯한 각종 무기를 압수했다고 부연했다.

사망자와 부상자들은 모두 콜롬비아 출신이라고 군 당국은 전했다.

콜롬비아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멕시코에서 보고된 폭력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부상자에게 영사 조력을 제공하는 한편 현지 당국 안전 권고 사항을 따를 수 있도록 멕시코

내 콜롬비아 커뮤니티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멕시코에서 당국과의 교전으로 인한 이민자 사망은 지난 달 1일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정부 출범 후 이번이 2번째다.

앞서 세인바움 대통령 취임식 당일 남부 치아파스에서는 군 장병이 화물차에 발포해, 10대를 포함한 6명의 이집트-엘살바도르-페루-온두라스 출신 이주민이 숨졌다. 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불법 이민자의 '침입'을 막기 위해 국경 봉쇄를 약속하며 "멕시코가 이민자를 막지 못하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TV 토론 등에서 국경 보안 강화 및 합법적인 이주 경로 확보 등 상대적으로 포용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위 아 더 월드' 꿈꾼 팝의 대부

(아프리카 난민 돕기 자선 앨범)

삶과 추억 프로듀서 퀸시 존스
프랭크 시나트라, 도나 서머와 협업
마이클 잭슨 '스릴러' 앨범도 제작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Thriller) 앨범을 제작한 미국 팝 음악계의 거장 퀸시 존스(사진)가 3일 세상을 떠났다. 91세.

4일 AP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존스는 이날 밤 로스앤젤레스의 자택에서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다. 사망 원인은 공개되지 않았다. 유가족은 "우리 가족에겐 그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겠지만, 우리는 그가 살았던 위대한 삶을 축하한다. 그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또 없을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20세기 팝 시장에서 가장 다재다능한 뮤지션으로 평가받는 존스는 1933년 시카고에서 태어났다. 부모의 이혼 뒤 아버지와 함께 위싱턴주로 이사한 뒤 14세 때 시애틀의 클럽에서 전설적 음악가 레이 찰스의 밴드에 들어가 트럼펫을 연주하며 본격적인 음악가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이후 75년 넘게 아티스트이자 작곡가, 편곡가, 프로듀서로 활동하며, 재즈·팝·영화 음악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경력을 쌓았다. 1950년대부터 클리퍼드 브라운, 듀크 엘링턴 등 유명 재즈 아티스트의 앨범을 작업하며 두각을 나타낸 그는 마이클 잭슨의 솔로 앨범 '오프 더 월'(Off the Wall, 1979)에 이어 전세계적으로 1억1000만장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 앨범 '스릴러'(1982)



1985년 퀸시 존스(앞줄 왼쪽 여섯째)는 기근에 시달리는 아프리카를 돕기 위한 올스타 밴드 'USA 포 아프리카'의 자선 음악 '위 아 더 월드'를 제작했다. 마이클 잭슨과 라이오넬 리치가 공동 작곡한 이 노래의 녹음에는 스티비 원더, 브루스 스프링스틴 등 당대 최고의 가수들이 참여했다. [중앙포토]

를 제작해 마이클 잭슨을 최고의 팝스타로 만들었다. 이후 마이클 잭슨과 '배드'(BAD, 1987) 앨범도 협업하는 등 손대는 것마다 히트시키는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며, 미국 대중음악의 지형을 바꿔 놓았다.

1985년 아프리카 기근 구호를 위한 올스타 자선 싱글 '위 아 더 월드'(We Are the World)를 프로듀싱한 것도 그의 음악 경력의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였다. 당시 마이클 잭슨이 라이오넬 리치와 노래를 공동 작곡하며 올스타 뮤지션들을 이끌었다. 이 싱글은 세계적으로 2000만장 이상 판매됐다. 재즈 빅밴드의 리더로 트럼펫과 피아노 연주에도 능했던 존스는 프랭크 시나트라, 아레사 플랭클린, 도나 서머 등과도 협업해 수십 개의 히트 음반을 만들었다.

각종 상도 휩쓸었다. 2011년 미국 국가예술훈장 수훈에 이어 2013년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역대 그래미상 후보에 가장 많이 오른 비운세와

제이지(각각 88회)에 이어 80번이나 후보에 올라 그중 28개의 트로피를 거머쥘었다.

한국과의 인연도 남달랐다. 2011년 처음 방한해 K팝 산업 전반을 둘러본 데 이어, 2년 뒤인 2013년에는 서울에서 첫 내한공연을 열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그는 "강남스타일 등 K팝이 미국에서 크게 히트했는데 한국과 미국은 음악적으로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다"며 "한국 아티스트들이 미국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내다봤다. 존스의 예측은 몇 년 뒤 현실이 됐다. 그는 지난 3월 자신의 91번째 생일엔 페이스북에 장문의 감사 글을 적었다.

"당신의 가능성과 긍정적인 잠재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그게 바로 19세와 91세의 차이다. 위대한 분들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눠줄 수 있기를 기도한다." **황지영 기자**

독립 늦어지는 영국 20대... "집값 문제"

영국 20대 청년들의 경제적 독립이 점점 늦어지고 있으며 주거비 급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태어나 성인이 된 Z세대 중 가장 나이가 많은 25~27세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3명 중 1명꼴로 가족과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년 전 20%보다 높은 비율이다.

최근 버진미디어가 18~35세 MZ세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3분의 1이 주거비와 전기·수도 요금을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평균 연령은 34세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주택을 소유한 25세 미만의 비율은 10%로 20년 전 24%의 절반을 밑돌았다.

주택 임차료 가격 상승률은 올해 초 연 9.2%에 달했다. 2015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고치다. 25세 미만이 월

세로 거주하는 비율은 74%로 25~34세(39%)의 두 배에 육박했고, 25세 미만의 수입에서 주택 임차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47%에 달했다.

싱크탱크 레졸루션 재단의 몰리 브룸 분석가는 "물가가 급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올라 사람들이 주택 소유 같은 인생의 이정표에 훨씬 늦게 도달하고 있으며 부모의 경제적 도움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브룸 분석가는 이 같은 현상이 부의 불평등을 심화한다고도 지적했다. 실제로 20대 청년들이 느끼는 재정적 압박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피너스그룹이 성인 2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Z세대 성인 68%가 경제적 이유로 사교 모임이나 활동을 거절한다고 답했으며, 별도의 조사에서는 25% 이상이 술이나 담배 등 기호식품에 일철 돈을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집권시 보건수장' 케네디 "수돗물 불소화 전면철회"

도널드 트럼프 재집권시 백악관에서 공중보건 분야 수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진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사진)가 수돗물 불소화 조치 전면철회 구상을 밝혔다. 케네디 주니어는 예전에도 보건 의료 분야에서 다양한 비과학적 주장을 펼치며 논란을 빚고 있다.



서 "트럼프 대통령과 퍼스트 레이디 멜라니아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기'(Make America Healthy Again)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일 본인 엑스(X-트위터) 계정에 "(차기 대통령 취임일인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백악관은 공공상수도에서 불소를 제거하도록 모든 미국 수도 시스템에 권고할 것"이라고 썼다. 그는 "불소는 관절염, 골절, IQ 하락, 신경발달장애, 갑상선질환과 관련이 있는 산업폐기물"이라고 주장하면

로 미량의 불소가 들어간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다. 이 발언 다음날인 3일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소 관련 얘기는 케네디 주니어에게 한 적이 없다고 NBC뉴스에 밝혔으나 "괜찮은 생각인 것 같다. 가능한 얘기다"라고 긍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트럼프는 또한 케네디 주니어에게 상원 청문회 통과가 필요한 장관 자리를 줄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큰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백신을 금지하는 문제도 케네디 주니어와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트럼프는 앞으로 얘기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4년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녹내장 레이저 치료 & 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구인 리셀러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복비지니아 부동산 협회 탑 프로듀서
킬로우 프리미어 에이전트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김경아의 독점 COMING SOON LIST!!

1. 윗브리지 타운홈
2. 알렉산드리아 싱글홈
3. 페어팩스 스테이션 싱글홈
4. 매나사스 타운홈
5. 버크 싱글홈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

FAIRFAX REALTY 509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김경아

11월 프로모션 BLACK FRIDAY

기간 10.30.2024 - 11.26.2024
조건 기간내 주문 & 11월 내 설치

엄게 최초, 실속 패키지 출시

(해당 패키지에 한함 / 6년 계약 기준)

월 렌탈료

\$49.99

부터



안마의자 특별 할인 혜택

일시불 구매 최대

4D ~~\$8,999~~ \$5,999
\$3,000
할인

3D ~~\$4,999~~ \$3,499
\$1,500
할인



일시불/렌탈 계약 혜택

일시불 최대
10% OFF

+ 신제품 청소기 증정

*해당 제품에 따라 할인율과 사은품 다름
*조기 소진 시 사은품 대체



렌탈 계약 시
CP-P012/CP-TN100 제품
2가지 혜택

월 렌탈료
\$2 OFF + 신제품
전기주전자 증정

*조기 소진 시 사은품 대체



🎁 가까운 매장/판매인을 통해 더 많은 특가 패키지를 만나보세요.

- 롯데마트 Ellicott City 410-750-8011
- 힐링마을 Ellicott City 443-878-9010

- H Mart Annandale 240-595-2257

-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 동일 설치처 필수
- 사은품 관련 부품과 필터 등의 추가 구매 및 A/S는 유상 제공

-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프리미엄 제품 CP-SN102HW, CP-TN100S/DS, CP-P012T/G, CP-QN1401SW, SP-KN501HW, CP-FN601HA, CP-FR601HW, CP-FR601SW, CP-ACR1620SW, CAC-F3010FW, CAC-D2020FW, ND-A0609FG, CBD-AM101W

일반 제품 CP-ADR501UW, CP-MN031W/BK, CAC-C1020FW, CWS-AO201W, CBD-AM106W, CBT-IS1131REW/RRW, CBT-I1030RW

사은품은 지역/매장/판매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 해석권 및 결정권은 CUCKOO RENTAL AMERICA INC. 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쿡루 렌탈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판매처 및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해당 프로모션 복수 고객 시 사은품 중복 증정, 단 패키지 상품은 사은품 적용 제외

CUCKOO

CUCKOORENTAL.COM
888.700.0425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 동일 설치처 필수
-사은품 관련 부품과 필터 등의 추가 구매 및 A/S는 유상 제공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웰빙모아 Wellbeing More

가을맞이 특별세일

여성의류, 극세사 이불, 모자, 가방, 내의, 강아지옷, 이불, 소품

침구세트 세일 20% off

사계절 면이불 • 베개 • 이불패드

가을, 겨울옷
신상
대량입하!



공진단 • 침향환 특별세일

<p>20% 할인</p>  <p>종근당 침향환 프리미엄</p> <p>침향은 나무에 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생성되는 진액이 수백년간 굳어져 만들어진 귀한 원료로 세계 3대 향 중 유일한 식물 원료입니다. 종근당 명품 침향보완은 이 귀한 침향의 함량을 22%로 만들어졌습니다.</p>	<p>20% 할인</p>  <p>김소형 침향환 녹용</p> <p>침향분말 22% 함유 15가지 전통 원료(오가피, 뽕나무잎, 진피, 청당귀, 천궁, 감초, 적약, 황금, 건조차가버섯, 사향발골, 녹용, 홍삼, 로얄젤리, 산삼배양근)와 침향 22%를 최적의 비율로 배합</p>	<p>20% 할인</p>  <p>광동 침향환</p> <p>광동이 자체연구를 통해 얻은 황금비율 배합으로 18단계 원료 품질 검증 17단계 생산공정, 511가지 원료 품질 규격 검사, 10단계 완제품 품질 검사를 거쳐 만들어집니다.</p>	<p>20% 할인</p>  <p>천호식품 천진단</p> <p>천하를 다스리는 힘 귀한 천진단은 정정지역 뉴질랜드산 녹용과 엄격한 품질관리를 거친 침향, 산수유, 참당귀 등으로 만들어집니다.</p>	<p>20% 할인</p>  <p>광동 경옥고</p> <p>동의보감의 전통방식을 기반으로 인삼, 복령, 생지황, 꿀 등 엄선된 약재만을 원료로 사용하여 섬세 98도에서 120시간(5일)을 달이는 중속과정을 통한 노력과 정성을 담아 만든 한방 영양제입니다.</p>	<p>20% 할인</p>  <p>항실의 보약 산삼 공진단</p> <p>사향/ 산삼/ 녹용/ 당귀/ 산수유</p>
--	---	--	--	--	---

풍기홍삼 직영점 입점기념 스페셜 세일

 홍삼정환골드	 6년근 홍삼분말	 풍기진 홍삼액골드
 홍삼액 수	 6년근 봉밀홍삼절편	 홍삼정 올데이
 산삼 배양근	 건삼	 녹용홍삼
 고려태극삼	 황풍정 석류 홍삼 콜라겐	 고려 홍삼차

종근당

 LACTO FIT 락토픽 생유산균	 이문 코어 슬림 골드 당케어
 아이클리어	 홍삼스틱 프로메가 알타지 오메가3

천호식품

 함께 먹어 더 좋은 녹용 홍삼	 목 건강을 위한 도라지 200	 남자한테 좋은 산수유
 새콤달콤한 맛이 그대로 진한 석류	 매일매일 활기차게 민들레와영귀	 냉채고 맛있는 흑마늘 진액
 양배추 주스 100 프리미엄	 천진단	

 장수 브랜드 우미노시즈쿠 후코이탄	 능협 홍삼, 녹용, 산수유, 흑마늘, 도라지, 배즙	 항균, 항산화효과 프로폴리스	 선삼정 MSM+칼슘의 만남 포스트신바이오후관원
 포스트신바이오프로바이오틱스	 플레티브 알타지 오메가-3	 관절 및 연골 건강 하이웰 프리미엄 홍합 12000	 평년 꿀밤 미니 압력솔 평년 꿀밤 옛날 미니 압력솔로 끈드레 솔밤을 6분 30초만에 딱!
 홍쌍리 청매실원 50년 이상된 전통향아리에 넣어 발효숙성한 매실원액	 우메틴 전제품 석류, 제철액기스, 발효미네랄, L-칼슘	 모다모다 샴푸 자연의 감변작용으로 단 4주 샴푸 사용으로 새치 커버를 관리하게!	

 바누 저당밥솥	 신일 톨링스톤 스팀 청소기	 바누 다기능 티팟	 누리아이 5800 눈안마 눈안마기	 다기능 디지털 우퍼 스피커 호도 라디오	 NUC 만능분쇄기	 집에서 쉽게 누룬지 만드는 벨넬 누룬지제거기	 메디테라피 온열뜸 힐링 솔루션 불어는 릴렉스 팟 불도 필요없고 냄새도 없어 안전하게 사용 어깨결림, 근육통, 생리통
---	--	---	---	---	--	--	--

한미우체국 택배 대리점 전화 주문시 당일 발송 모든 행사는 애난데일과 센터빌 동시 실시

<h2 style="color: #008000;">애난데일점 (703) 256-5500</h2> <p>7133-D Columbia Pike, Annandale, VA 22003</p>	<h2 style="color: #008000;">센터빌점 (703) 830-7755</h2> <p>5961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p>
--	--

영업시간 9:30am ~ 7pm (365일)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996년부터 27년간 원칙있는 진료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Office Hours by Appointment

트럼프 당선될 경우 주한 미지상군 철수 추진할 수도

4년마다 다가오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내의 변화는 물론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들,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들에게도 미 대선 결과의 영향이 미치고 있다. 특히 후보와 정당에 따라 미국의 대외 정책에 다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 세계는 선거 결과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한 아이젠하워 대통령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이후 한미 간 동맹 관계 흐름을 중심으로 놓고 본다면, 미국의 대선 결과는 원조정책과 안보정책 등 한국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주었다. 민주당이 재정을 확장하고 국제적 무역협력을 넓히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추진했다면, 공화당은 예산의 축소와 자국 내 산업의 진흥을 좀 더 강조하면서 고립주의적 입장을 취했다.

1953년 시작된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핵심 정책은 재정 축소였다. 한국전쟁으로 미국의 국방비가 3배 이상 증가한 상황에서 취임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군비 축소를 통한 재정균형을 주요한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의 전쟁 중지, 그리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위해 한국을 중립화하는 정책도 추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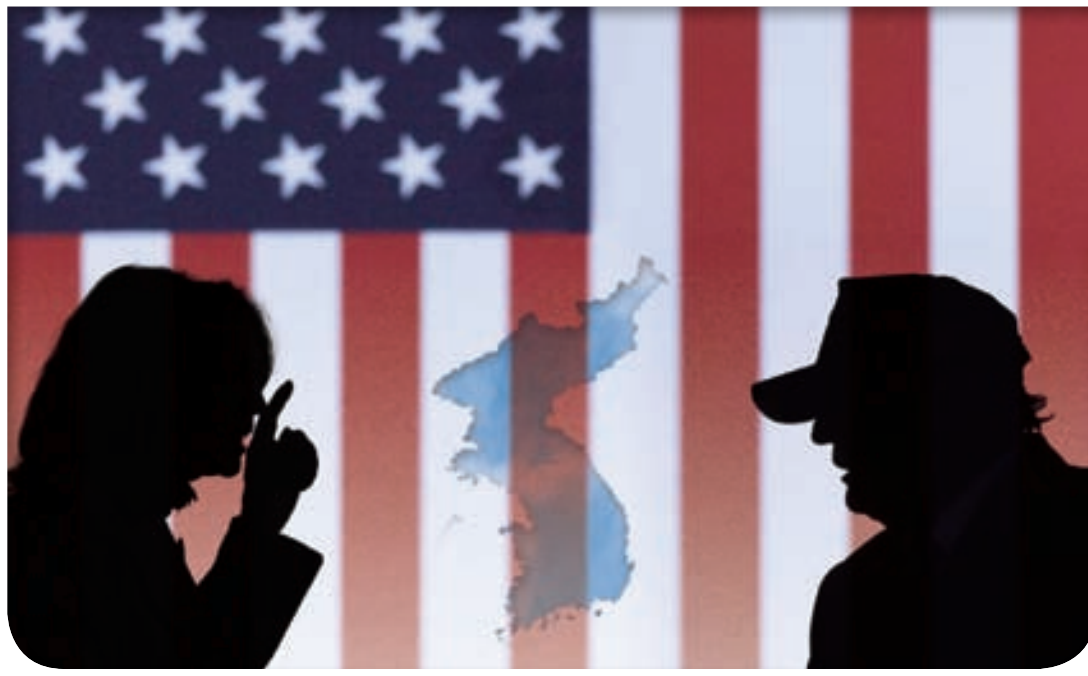
한반도와 대만해협의 위기로 인해 주한미군 철수보다는 감축 정책으로 전환하였지만,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감축도 추진했다. 1954년의 한미합의의사록으로 유엔군 사령관이 한국군의 작전권을 갖는 대신 한국군 유지비용을 미국이 제공하기로 한 만큼 한국군의 감축은 미국의 재정 축소를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비용 축소를 위해 주한미군 감축과 전술핵 설치가 결정되었다. 아울러 1958년부터 미국의 원조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다.

제7사단을 철수시킨 닉슨 대통령

닉슨 행정부는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늘어난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공산주의 국가와의 화해를 추진하는 데탕트 정책을 실시했다. 냉전의 긴장이 줄어들면 군축이 가능하고, 이는 미국 정부의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었다.

광 독트린을 통해 베트남과 아시아 국가에서 미군의 철수를 추진했다. 한반도에서 남북대화를 지지했고,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다. 베트남에서 철군하더라도 중국이 북베트남을 지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1975년까지 주한 미지상군의 철수 계획을 세웠고, 한국 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1971년 주한미군 7사단을 철수했다.

닉슨 행정부는 한국의 전투부대가 베트남에 있는 동안 주한미군 규모에 변화가 생길 경우 사전에 한국 정부와 의논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한미 간의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주한미군 감축으로 한국군의 현대화 사업을 지원했지만, 대부분의 원조는 1975년 종료되었다. 미국 내 산업 진흥을 위해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면직물 쿼터제를 도입했으며,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을 실시했다.



민주 '재정 확장 및 적극 개입' vs 공화 '재정 축소 및 고립주의'
아이젠하워·닉슨·부시 등 공화당 집권 때 주한 미군 축소 움직임
케네디·존슨·클린턴 등 민주당 때는 원조 확대 및 적극 개입정책
누가 당선되면 국가 안전 위한 모든 대책과 옵션 갖추고 있어야

부시 대통령의 전술핵무기 철수

미국 내 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해 일본 자동차에 중과세를 했던 레이건 대통령에 이어 1989년 취임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이전 정부 시기 군사력 재건을 통한 소련 압박 정책으로 인해 늘어난 재정을 감축해야만 했다. 이를 위해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 기지의 재편을 추진했다. 이는 소련과 동유럽 공산정권의 몰락에 기인한 것이기도 했다. 탈냉전으로 인해 냉전 상황과는 다른 해외 미군 기지의 재배치가 필요했던 것이다.

1990년대 초 부시 행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잘 진행되는 듯했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인한 '사막의 방패'와 '사막의 폭풍' 작전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엄청난 비용을 써야 했지만, 실제로 걸프전의 비용의 대부분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출했다. 해군, 공군의 작전과 달리 미지상군의 걸프전은 4일 만에 막을 내렸다.

부시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과 함께 1991년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 철수를 발표했다. 이는 남북기본합의서, 남북비핵화선언, 그리고 남북 유엔동시가입으로 이어졌다. 1992년에는 한중 수교가 있었고,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던 한국군 평시 작전권의 한국정부로의 이양이 합의되었다.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의 유엔군 측 대표도 한국군 장성으로 교체되었다. 닉슨 행정부가 하지 못했던 일을 부시 행정부가 했던 것이다.

아들 부시 대통령 역시 아버지가 했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을 추진했다. 9·11 테러로 인한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군비 축소는 쉽지 않았지만, 주한미군 감축과 함께 전시 작전권을 한국 정부로 이양하는 계획이 추진되었다. 북한 핵문제가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었지만,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6차회담을 통한 압박 전략을 추진했다. 북핵실험이 성공하자 냉각담 폭파와 뉴욕 필하모니의 평양연주가 이루어졌다.

케네디 정부와 국제개발처 설립

이러한 공화당 정부와 달리 민주당 정부는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정책을 취했다. 이미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을 통해 루스벨트 행정부와 트루먼 행정부는 해외 전쟁에 적극 개입하는 정책을 취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미국의 경제가 가장 호황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한국전쟁 발발 직후 군사비 증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1960년대 초 케네디 정부는 대외 원조를 대폭 확대하였다. 미국의 대외정책이 국제개발처(USAID)로 일원화되었다. 전쟁과 식민지 경험으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 잉여농산물을 이용한 구호와 복구가 중심이었던 1950년대와 달리 장기간의 계획을 갖고 차관을 공여하는 재건 원조로 변화하였다.

베트남의 상황이 악화하고 있었지만, 케네디 정부에 이은 존슨 행정부도 베트남으로부터 철수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투부대를 파병하면서 베트남에서 미국의 전쟁을 시작했다. 여기에 아시아 동맹국들의 군대 파병을 요청했으며, 그 모든 비용을 미국이 충당했다. 소련이 유엔 안보리에 있는 한 유엔군을 더 이상 동원할 수 없었다.

존슨과 베트남, 클린턴과 북한

베트남 전쟁 기간 존슨 정부는 동맹국들에 대해 무역 혜택을 제공했다. 한국을 비롯해서 베트남에 전투부대를 파병했던 필리핀과 태국은 전선

에서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존슨 행정부가 끝나자마자 미국 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미국 정부의 돈을 받았던 한국을 비롯한 참전국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기도 했다.

경제에서의 적극적인 개입 정책은 클린턴 행정부에서 더 잘 드러났다. 1970년대 후반 민주당 카터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이란, 니카라과에서의 혁명, 그리고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 발생했다는 판단 때문에 클린턴 행정부는 중동뿐만 아니라 발칸반도에 적극 개입했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한 핵시설 타격계획도 세웠다.

1994년 북한과 제네바 합의를 맺고 경수로 건설과 중유 제공을 하는 대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또한 WTO라는 새로운 세계 무역기구를 만들어 전세계의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토대를 만들고자 했다. WTO가 미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구가 아니었지만, 시장의 확대를 위해 이를 추진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아들 부시 행정부 시기에 무너진 미국의 소프트파워와 동맹관계를 재건하고자 노력했다. 물론 대부분의 정책은 미국 내에서의 의료보험을 비롯한 사회복지 정책의 강화에 더 초점이 맞추어졌고, 이란·쿠바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한반도 문제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지만, 북한 및 동맹 문제에 있어서 최대한 원칙을 지켜려 했다.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이제 곧 미 대선 결과가 나올 것이다. 누가 되든 과거에 있었던 민주당과 공화당 정책의 틀을 이어갈 것이다. 특히 트럼프의 경우 미국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해외에 대한 개입을 축소하는 것은 물론, 해외 미군의 주둔 비용 중 동맹국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킬 것이다. 이미 한국과 일본, 유럽은 이를 경험한 바 있다. 궁극적으로는 미국 정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시 행정부와 유사한 주한 미지상군 철수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도 크다.

아울러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면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바로 종결하겠다고 한 약속도 지키려 할 것이다. 이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와 서로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재집권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이미 예전의 미국이 아니다. 또한 민주당이 항상 공화당과 달랐던 것은 아니다. 케네디와 카터 행정부 시기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 정책을 추진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중 간의 갈등은 계속되었다. 민주당 정부의 경제 정책도 과거와는 달리 공화당과의 교집합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누가 당선되면 한국 정부는 모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북한-러시아가 더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 안전을 위한 모든 대책과 옵션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몸과 마음이 불편하신 어르신 모십니다!



“정성과 돌봄이
다릅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 양질의 한식과 간식
- 한국 TV 시청 가능
- 최고의 시설 (1인/1실)
-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
- INOVA 병원 5분 거리

문의 703-980-9890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좌골 신경통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어깨, 무릎 통증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I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러 쿠르스크 파병 북한군 병력, 우크라이나군 첫 공격 받았다”

우크라이나 주장... 피해 규모는 안 밝혀
블링컨 지난 31일 “전투 투입” 언급
러 장갑차, 북 병력 버린 영상도 공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에서 파병된 북한군 병력을 공격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자가 4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CCD)의 안드리 코발렌코 센터장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북한 병력이 쿠르스크에서 이미 첫 번째 공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코발렌코 센터장은 북한군과의 교전 상황이나 북한군의 피해 규모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아직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코발렌코 센터장은 국영방송에 출연해 “북한군이 아직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곧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북한 병력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고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전투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31일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근 정보로 볼 때 북한군 8000명이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했다”며 “러시아는 북한군에 군복과 장비를 제공했으며, 포병, 무인기(드론), 참호 공략을 포함한 기본 보병 작전 훈련을 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최전선 작전에 북한군을 투입할 의도가 있다는 걸 시사하며 며칠 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투에 투입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러시아 장갑차가 북한군으로 보이는 군인들을 전장에 남겨둔 채 철수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무인기(드론) 촬영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에는 러시아군 BRT-82 장갑차 3대가 쿠르스크 지역 칼리노프 마을로부터 남쪽으로 4km 떨어진 수목지대를 공격하는 모습이 담겼다. 장갑차는 수목지대 근처까지 다가가 기관포 사격을 가하면서 탑승한 보병들에게 하차를 지시했다. 그러나 이들은 하차 후 전투대형을 갖추지 못한 채 장갑차 주변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고 장갑차들은 이들을 남겨둔 채 철수했다.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아마도 장갑차를 모는 러시아군과 탑승 병력이었던 북한군 사이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어난 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북한, 경의선-동해선에 전자 막는 휴산 북한이 남북을 연결하는 동해선을 폭파한 후 중장비를 동원해 전차를 막기 위한 대전차구와 휴산을 만든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사진 속 대전차구는 좌우 160m, 앞뒤 10m, 깊이 5m이며 휴산의 높이는 11m 정도다. [사진 합동참모본부]

서울 온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한국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희망”

(호세프 보렐)

“북한 파병, 동북아시아 안정도 위협”
러, 북 비핵화 입장 바꾼 것도 비판
“NPT 의무 포기, 안보리 결의 위반”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왼쪽)가 4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한-EU 전략대화에서 악수하고 있다. [뉴스1]

첫 한국-EU 전략대화 참석차 방한 중인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4일 한국이 (기존의 인도적 지원 외에) 군사 원조를 포함한 모든 측면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렐 고위대표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 측에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 있는지”는 질문에 “나는 우크라이나에 가장 광범위한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추가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을 (한국과) 논의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북한군의 파병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상당히 확대

(escalation)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자, 유럽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안정도 위협한다”고 강조하면서다.

현재 우크라이나 현황에 대해 그는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고 러시아는 어떤 식의 도움이든 절박하게 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군사 지원을 포함한 모든 측면에서 우크라이나를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렐 고위대표는 이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만난 뒤 엑스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실질적 위협이며 대한민국은 이 점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있어 단결하고 있으며 나

는 한국이 그것(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하도록 독려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그간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북한군 파병 이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단계별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 지원을 고려할 수 있고, 그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에 공격용(무기)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렐 고위대표는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과 러시아 간의 밀착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북한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호의를 베푸는 대가로 무엇을 얻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때

우 중요하다”며 “러시아는 최근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바꿨는데 이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핵심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며 러시아가 지지해 채택했던 유엔 안보리 결의안 다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지난 9월 27일 북한 비핵화가 ‘종결된 문제’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한편 이날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난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장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 간 협력 강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현주 기자

‘북한강 훼손시신’ 유기범은 영관급 장교, 피해자는 동료 군무원

국군사이버사서 함께 근무한 사이
경찰 “말다툼하다 격분해서 범행”

현역 장교가 말다툼 끝에 여성을 살해한 뒤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4일 “중령 진급 예정자인 현역 군인 A씨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죄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 B씨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현역 군인 A씨가 4일 강원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33·여)로 밝혀졌다.

A씨는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국군사이버전사령부 소속으로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다. 사이버사는 사이버전을 시행하는 국방부 직할 부대다. 숨진 B씨는 과천시 부대에서 A씨와 함께 근무한 사이로, 사건 발생 이후인 지난달 말 계약이 종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 안에서 B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옷가지로 덮어뒀다가 퇴근 후인 오후 9시쯤 부대 인근 공사장에서 훼손했다. 이어 다음날 오후 9시 40분쯤 자신이 10여년 전 근무했던 강원도 화천군으로 가서, 시신과 범행 도구를 북한강변에 버렸다.

A씨는 유기 당시 시신 봉투에 돌덩이를 함께 넣어 떠오르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일주일만인 지난 2일 오후 2시 36분쯤 화천군 화천읍 화천체육관 인근 북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떠오르면서 탈미가 잡혔다. 지문·DNA 분석으로 B씨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 등을 분석해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어 지난 3일 오후 7시 12분쯤 서울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춘천=박진호 기자

악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11월 HOT 리스팀

- 디시 콘도 렌트, 스튜디오 \$2100 아메리칸 대학, 조지타운 대학, 조지왕스턴 대 차로 10분거리
- 스텔링 2024년 지어진 새 콘도 \$2800 방2 + 화2 즉시 입주 가능
- 덜프리 타운하우스 \$2,350 방3, 화2.5, 즉시 입주 가능
- 우드브리지 콘도 \$2,800 2005년 지어진 새 콘도 방3 + 화2, 차고 1 게이트 커뮤니티 넓고, 밝은 깨끗한 집, 즉시 입주 가능
- 타이슨코너에 인접한 타운하우스 비엔나 \$3,300 방3+ 화3.5, 지하실 넓고 작은 뒷마당 겸비, 즉시 입주 가능

독점 리스팀 힘든 세입자나, 밀린 렌트비로 고민중이시면 연락주세요. ☎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 앰플러스 부동산 대표 / 악착같은 부동산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김원근 변호사 유언상속·이혼

- Probate·상속재산 정리절차·한국의 유산상속분쟁
트러스트·유언·위임장 Power of Appointment·취소 가능 트러스트·취소 불가능 트러스트
- 합의 이혼·재판 이혼·한국관련 국제이혼 재산분할·자녀 양육권·양육비 생활비 청구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소통기회’ 시정연설 불참한 대통령 ... 회견이 돌파구 될까

MB 이후 12년만에 총리가 대독 명태균 의혹·특검법 대치 우려 불참 2년 전엔 야당 시위에도 연설 감행

2025년 예산안 시정연설이 진행되던 4일 국회 본회의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해 문재인 정부를 거쳐 꾸준히 이어지던 대통령의 정기국회 시정연설 관행이 12년 만에 깨진 것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엔 윤 대통령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왔다. 한 총리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 677조4000억원에 대한 대통령 시정연설을 대독했다. 총리가 대독한 건 2012년 10월 이명박 대통령 때 김황식 총리 이후 처음이다.

정기국회 시정연설은 예산심의권을 가진 국회와 납세자인 국민에게 내년도 정부 살림살이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의회 존중’ 척도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1988년 첫 시정연설부터가 1987년 체제의 산물이었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직접 시정연설을 하지 않았으나,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첫해에 직접 시정연설을 했다.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엔 매년 대통령이 국회를 찾았다. 윤 대통령도 2022년과 지난해 두 차례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한 건 야당이 명태균씨 통화 내용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고리로 탄핵을 언급하는 등 정쟁 수위를 높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김민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장의 집회에 나섰던) 그분들이 출석하는데, 시정연설을 하면서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한다는 게 적절할까”라고 엄호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윤 대통령 불참에 항의하는 의미로 대독하는 한 총리를 향해 “서면으로 하라”는 야유를 보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에서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인데 그걸 저버렸다”고 했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처럼 노골적으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대통령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장 밖에서 “공천개입 통화 대통령이 해명하라”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었다.

야당의 이런 행태도 처음은 아니다. 윤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22년 10월 시정연설 때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고 로터스홀에서 시위를 벌였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정치 상황이 어떻더라도 과거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이 무너졌다는 데 안타까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랬던 윤 대통령 스스로 12년 만에 관행을 깬 것이다.

정치권 원로들은 야당의 공세가 거친 것과는 무관하게 “대통령이 시정연설만큼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11~14대 국회의원을 지낸 유준상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통화에서 “국정 운영을 놓고 국회 갈등을 부각하며 국민에게 불안감을 안겨줬던 게 좋은 결실을 본 적이 없다”며 “여야 가릴 것 없이 역대 정권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의견을 요구한 또 다른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명태균으로 국정 운영이 엉망이 되고 끌려가 다시피 한 게 두 달째”라며 “이 상황에서 국회 정상화를 운운하며 총리에게 예산안 관련 발언을 떠넘긴 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2년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 없었다 4대 개혁, 국가 생존 위해 당장 할 과제”

(의료·연금·노동·교육)

총리 대독, 윤 대통령 연설 내용 29분 연설 중 의료·개혁 19번 강조 작년과 달리 국회에 ‘협조’ 표현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며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빈틈없이 집행을 준비하여 민

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산안 시정연설을 총리가 대신한 건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을 김황식 총리가 대신한 이후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고금리와 고물가 등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해 설명했다. ▶올해 수출 사상 최고치 경신 전망 ▶2026년 1인당 GDP(국내총생산) 4만 달러 상회 전망 등 그간의 거시경제 성과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이처

윤 대통령, 7일 회견 명태균·김여사 설명

용산 ‘모든 사안 대해 소상히 얘기’ 한동훈 ‘대통령 사과’ 요구 뒤 발표 대통령실 ‘예정됐던 회견 앞당긴 것’

윤석열(열골) 대통령이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한다고 대통령실이 4일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서 하는 건 지난 8월 29일 이후 2개월여 만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통령 임기 반환점(11월 10일)을 맞아 국민들에게 지난 성과를 보고드리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이라며 “일몰일담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의 입장 표명 결단이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졌다”며 “대통령이 국민께 직접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결정은 전격적이었다. 당초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미국 대선, 아



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중요한 외교 일정이 마무리된 뒤에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설명할 예정”이라며 “인위적인 보여주기식 인사는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기류는 이날 밤 급반전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오늘(4일) 참모 회의를 하다가 결정됐다”며 “그동안 기자회견을 준비해 왔으니, 참모 회의에서 ‘순방을 가기 전에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고, 참모들도 같은 의견을 내니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명태균씨와 김건희 여사 문제 등에 대해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고 했다.

민간한 현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어떤 수위의 입장을 밝힐지에 대해선 여

권 핵심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4일) 얘기한 것만 받을 거라면 대통령이 차라리 기자회견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진적 쇠신,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등을 촉구했다. 반면 대통령실 내부엔 “한 대표가 요구한 내용을 윤 대통령이 곧바로 받아들이긴 힘들 것”이란 기류도 우세하다.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빨라지기 까지 여권은 몰밑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과 명씨가 통화한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이 순방을 다녀온 이후 국민과의 대화나 기자회견을 할 것”이란 말이 나오자 여권에선 “입장 표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쇄도했다고 한다.

허진·박태인·이창훈 기자

이재명 “증시 어려워, 금투세 폐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4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9월 29일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예 대신 폐지’로 가닥을 잡은 지 한 달여 만이다(중앙일보 10

월 2일자 1면). 이 대표는 4일 “참 고민이 많았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기본적 원리가 당연하다”면서도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앞서 문재인 정부 때 도입·시행이 결정됐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 2년 유예를 결정해 별도 조치가 없으면 내년엔 시행될 예정이었다. 당초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에 찬성했지만, 지난 8·18 전당대회 때 이 대표가 유예를 시사하면서 당내 논란이 불거졌다. ▶

★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 2024 여름 마켓에 울리지 않고 주인·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 GALAXY REALTY

갤럭시부동산

★ 30여명 더 있음

매매 / 렌트	금액	설명	주소	기간	세입자
★ 주택 ★ McLean, VA SOLD	\$900,000	*계약 후 10일내 세를먼트 완료 현재 3년 렌트 (\$4,250) 렌트 끼고 살 투자자. 매달 25일경 기관에서 다음 달 렌트비를 주인 통장으로 바로 입금함	★ 8*03 Fallstaff Rd, McLean, VA	1년	Non Korean
★ 사업체 ★ Fairfax, VA	\$3,500	Mantua ES, Frost MS, Woodson HS 권 싱글하우스 렌트. 부엌, 화장실 upgrade 된 집, 10월 1일 입주 가능	★ 82* Wakefield Dr, Arlington, VA	3년	주재원
★ 사업체 ★ 델리샵 (DC)	\$150K	DC 내 좋은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사업 운영하면서 투자용 집, 두 자녀 집 살 때 다운 페이먼트 지원할 정도로 안정된 수입	★ 822* Crestwood Heights Dr, McLean, VA	2년	Non Korean
★ 사업체 ★ 세탁소 (MD)	\$300K	MD, 코로나 때 주변 세탁소 문 닫아 장사가 더 잘되는 세탁소	★ 1*11 Fallbrook Ln, Vienna, VA	2년	주재원
			★ 1*02 Abbey Way, McLean, VA	3년	교민
			★ 22*3 N Underwood, Falls Church, VA	2년	교민
			★ 7*32 Old Dominion Dr, McLean, VA	2+1년	국제기구
			★ 1*89 Dawson St, Vienna, VA	2년	교민
			★ 2*02 Scotch Haven Dr, Vienna, VA	2년	주재원
			★ 7*37 Backett Wood Ter, McLean, VA	3년	주재원
			★ 1*40 Kensington Rd, McLean, VA	1년	주재원
			★ 7*51 Tremayne Pl, McLean, VA	1+1년	주재원
			★ 411* 11th St, Arlington, VA	2년	주재원
			★ 1*33 Colonial Hills Dr, McLean, VA	3년	국제기구
			★ 2*69 Oakbourn Sq, Oakton, VA	18개월	주재원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염증없는 잇몸, 건강한 치아
오래가는 임플란트”

www.naturadent.net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과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어 치과외과사상 수상

natura 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임플란트 Implant
응급환자 Emergency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나투라 치과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한동훈 “김여사 활동 중단” 쇄신 압박... 특검엔 거리두기



1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 해명을 촉구하고 있다. 2 같은 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대독하고 있다. 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뉴시스]

‘명태군 녹취록’ 논란 후 첫 입장 한 “독단적 국정운영에 국민 반감”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군씨가 나는 통화 녹음 공개 이후 침묵해 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나흘 만에 입을 열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쇄신 개각 단행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 즉각 임명 ▶국정 기초 전환 등을 요구했다.

한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치 브로커와 소통한 녹음과 문자가 공개된 건 그 자체로 국민께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이라며 “국민의 큰 실망은 정부·여당의 큰 위기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면 솔직하고 과감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뭔가 감추고 빼고 더하려고 하다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11분14초 분량의 모두발언 가운데 7분35초를 ‘명태군 사태’의 정치적 수습책을 요구하는 데 할애했다. 한 대표는 우선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 개편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즉각 대외활동 중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반감이 커졌다는 점을 아프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정 기초의 전환이 반드시 더 늦지 않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쇄신 범위를 국정 전반으로 확대하면서 메시지 수위를 높인 것

은 더는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이 대통령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야만 여권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친한계도 가세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당 최고위에서 “지금은 국면 전환을 위해 뭐든지 해야 할 때”라며 “대통령실은 적극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정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을 향한 한 대표의 메시지는 당초 윤 대통령이 명씨와 나는 대화에 대한 유감 표명과 특별감찰관 추천 필요 등 기존 입장의 연장선 수준으로 검토됐다. 하지만 지난 1일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주말 사이 한 대표가 중진의원들을 포함한 당 안팎의 인사들로부터 명태군 리스크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사과 촉구’로 방향을 틀었다고 한다. 한 중진 의원은 “공개적으로 말을 못할 뿐, 지금 당정이 모두 위기라는데 다들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여권에선 “대통령과의 차별화로 비치지 않기 위해 신경을 썼다”는 평가도 나왔다. 야권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언급하지 않았고, “당도 최선을 다해 끝까지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친한계 의원은 “위헌적 특검법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한 대표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훈 기자

▶ 립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건전 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는 것”이라며 내년 예산안을 올해 (656조6000억원)보다 20조8000억원 (3.2%) 늘린 677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이유를 설명했다.

29분의 시정연설 중 의료(19회)·개혁(19회)이란 단어를 거듭 써가며 상당 부분을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 설명에 집중한 윤 대통령은 “4

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에 대해선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국회가 인구전략기회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등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불법임을 알리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지난해 10월 30일 직접 나선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교권 보호 4법의 개정에 협조해 주신 국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고 하는 등 국회와 관련해 두 번의 ‘감사’와 다섯 번의 ‘협조’란 표현을 썼다. 하지만 이번엔 연설을 끝내

며 “감사하다”고 한 게 전부였다. 이날 시정연설이 ‘총리 대독’이나 ‘총리 연설’이냐를 놓고 한때 총리실 내부에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관례에 따라 ‘총리 대독’으로 정리되는 일도 있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시정연설에 이어 정책 추진과 성과 홍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5일과 6일 성태윤 정책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잇따라 브리핑을 갖고 국정 성과와 향후 과제를 설명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도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와 총리 주례회 등에서 “연내에 국민들께서 정책 성과를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개혁 과제에 대한 각 부처의 신속한 추진을 독려하고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허진 기자

▶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찬성·반대팀으로 나눠 금투세 토론을 벌이기도 했고, 지난달 4일엔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관련 결정을 지도부에 일임키로 했다. 결국 이 대표가 폐지로 결론지으면서 3개월 이상 지속된 금투세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 정국에서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측 유예안을 거부하면 금투세 시행 후 민주당이 주식 투자자의 원망을 뒤집어 쓰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개미 투자자들 일부가 ‘금투세=재명세’ 등의 여론을 조성한 것에 부담을 느꼈다는 얘기도. 당내 금투세 찬성론자인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은 “지도부가 정무적으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클릭 비판이야 일겠지만, 국민 먹고사는 문제가 최우선이라는 ‘먹사니즘’이 이 대표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여름부터 굉장히 강조하며 집요하게 주장해 온 민생 정책 중 하나”라며 “민주당이 늦었지만 완전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달 중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심새롬·나상현·하남현·성지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정부와 여당에서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 ‘금융세제 개편방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발표
12월	금투세 도입(2023년) 등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금투세 도입 2년 유예 발표
12월	금투세 도입 유예(2025년) 등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3년 1월 1일	당초 금투세 시행일
2024년 1월 22일	윤 정부, 금투세 폐지 추진 공식화
7월 25일	윤 정부 ‘세법 개정안’ 예정대로 금투세 폐지 발표
8~10일	민주당, 연일 금투세 시행 여부 관련 논의
11월 4일	민주당, 금투세 폐지 동의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347-3788



수잔 김



산삼

하늘이 내린 최고의 명약

미국 가장 청정지역 West Virginia에서 저와 현지인이 직접 캐온 야생 산삼입니다.

“30~40년 이상의 최상급 산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면역력 | 항암효과 | 당뇨 | 혈압 | 체력증강

1/2 Pound \$600부터

Dealer No. 90-491972 • Permit No. 007669



문의 (571) 236-8591

14800 Rydell Rd., Centreville, VA 22121

우리말 바꾸기

‘거예요’

꽃이 곧 필 (거예요/거예요). 괄호 안에 있는 ‘거예요’ ‘거예요’ 가운데 어느 것이 맞는 말일까? ‘-예요’와 ‘-예요’는 누구나 헷갈리는 말이다.

우선 ‘예요’는 ‘이예요’가 줄어든 말이다. 여기서 ‘이’는 명사를 서술어로 만들 때 쓰는 조사다. 즉 명사를 서술어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가 첨가된다. ‘기’는 ‘것’을 구어적으로 이르는 말로 명사다. 따라서 명사인 ‘기’를 서술어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가 추가된다. 그래서 ‘기+예요’가 아니라 ‘기+이+예요’ 형태가 되고 ‘기+이예요’가 줄어 ‘거예요’가 되는 것이다.

명사의 경우 받침이 있으면 ‘이예요’, 없으면 ‘예요’와 결합한다. ‘책+이예요→책이예요’ ‘꽃+이예요→꽃이예요’ 등은 받침이 있는 명사여서 ‘이예요’가 붙은 경우다. ‘저+예요→저예요’ ‘나무+예요→나무예요’ 등은 받침이 없는 명사여서 줄임말인 ‘예요’가 붙은 예다.

그렇다면 ‘아니예요/아니예요’는 어느 것이 맞을까? 명사가 아닌 용언(동사·형용사)의 어간과 직접 결합할 때는 서술격 조사 ‘이’가 필요 없으므로 ‘예요’만 붙는다. ‘아니다’의 경우 어간이 ‘아니’이므로 ‘아니+예요→아니예요’가 된다. 명사일 때는 받침이 있으면 ‘이예요’, 없으면 ‘예요’가 자연스럽게 붙음되기 때문에 헷갈릴 염려가 많지 않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는 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유홍주 칼럼

미국 대선 ‘클로저’와 ‘다거’의 대결



유홍주
한미자유연맹 상임고문

나라오를 제시했다. 정치 컨설턴트들이 클로저라는 AI를 개발하여 특정 후보의 당선을 목표로 정치 캠페인을 전개할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이다.

클로저의 특징점은 이렇다. 우선, 개인 맞춤형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생성하고, 강화학습 기법을 활용해 메시지를 친근하고 담담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또 사용자의 반응을 학습해 스스로 진화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얼마나 영특한지 반대 표를 던질 것으로 예측되는 유권자에게 스포츠나 연예 정보에 정신이 팔리게 해, 정치 정보에 둔감하게 만들거나 진실이 아닌 그럴싸한 팩트를 만들어 유권자를 호도하는 능력도 갖췄다. 전문가들이 ‘할루시네이션(환각현상)’이라 부르며 극도로 경계하는 AI가 숨긴 날카로운 발톱이다.

오늘 열리는 미국 대선, 클로저는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될까? 만약 트럼프 캠프가 클로저를 채택한다면, 해리스 캠프는 다거로 맞불을 놓을 것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므로, 결국 남은 선거전은 클로저와 다거의 진검승부가 될 것이다.

경합주의 표차가 극히 적은 상황에서 둘 중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백악관의 주인이 갈릴 수도 있다. 클로저와 다거 시나리오의 교훈은 필

까? 좋은 정책을 가진 정치인이 아니라, 생성형 AI를 효율적으로 활용한 측이 승리한다는 시나리오는 인간의 주권과 통제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결국 미래의 선거는 인간이 아닌 AI가 주도하고, 승리의 축배는 인간이 아닌 AI가 들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인 셈이다. 클로저와 다거의 폭주를 막으려면 결국 개인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확고한 인식, 이를 지켜내려는 태도를 확립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아가 AI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도 필요하다.

유럽연합(EU)은 AI법을 만들어 AI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위험으로 분류했다. EU의 노하우를 접목해 AI가 생성한 메시지에 경고문을 첨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릴 수 없다는 반론은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다. 이 논쟁 또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미래의 과제이다.

며칠전 미국에서 14세 청소년이 AI 챗봇 때문에 자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챗봇이 실제 심리치료사, 연인처럼 말을 건넸으며, 결국 청소년은 ‘AI 밖의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한다. 소년의 부모는 챗봇을 만든 스타트업에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클로저와 다거 시나리오가 섬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연인처럼, 친구처럼 다가와 내 감정과 행동을 조정하고 결국 인간의 정치 주권마저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의미를 더 깊게 성찰할 때이다. AI 혁명 시대의 온전한 정치 주권은 결국 디지털 주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독자마당

글은 쓸 수 있을 때까지



한 월간지와 고등학교 동문회 회지 등에도 기고했다. 그리고 책도 두 권이나 출판했다.

땅 속으로 파고들지 못하는 씨앗은 봄이 와도 싹을 기대할 수 없으니 그 씨앗은 쓸모가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스스로 깊은 고독에 빠져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하지만 이 일은 많은 열정과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다. 나라고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글 쓰는 것도 그만둘까 생각하니 어쩐지 허전해진다. 아니, 허전함을 넘어 슬픈 생각이 든다.

그래서 글쓰기를 중단하기보다는 새로운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 작은 씨앗 하나에 모든 것이 시작되니 그 씨앗이 땅속에서 움이 트고 싹이 나오니 하나님의 창조의 찬란한 결실을 기대해 본다. 씨앗 없는 땅에는 생명력이 있는 그 어떤 것도 창조되지 못한다. 그 씨앗은 모든 것의 시작이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하는 글을 쓰자. 내가 글을 쓸 수 있을 때까지.

이영순·산타클라라

맛있는 용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참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황계실 부동산 “최고 전문가” 세미나

일시 2024년 11월 9일 오전 10시
장소 14641 Lee Hwy. #109, Centreville (누보 하우스 센터빌 오피스)
예약 황계실 (571) 239-6054 (선착순 20명)

황계실 브로커
내집 동네 최고가로 파는 노하우 (최저 비용, 최대 효과)
2025 집 값 어떻게 될까?
내집 인제, 어떻게 사야할까?

신디 양
StateFarm 대표
사고와 클레임이 증가하는 요즘, 내 집 보험 점검 필수

데니얼 유
내집 지붕 진단 및 라이선스 소유 업체 선정해야 하는 이유 / 방법

이성호
Eruda Design & Build Inc (Class 'A' License) 대표
겨울철 내집 관리 요령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황계실 571-239-6054

MARYLAND • VIRGINIA • TIDEWATER • RICHMOND

2025 메디케어 등록안내

2025년에는 가지고 계신 메디케어 어드벤처지(Part C)와 약보험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비교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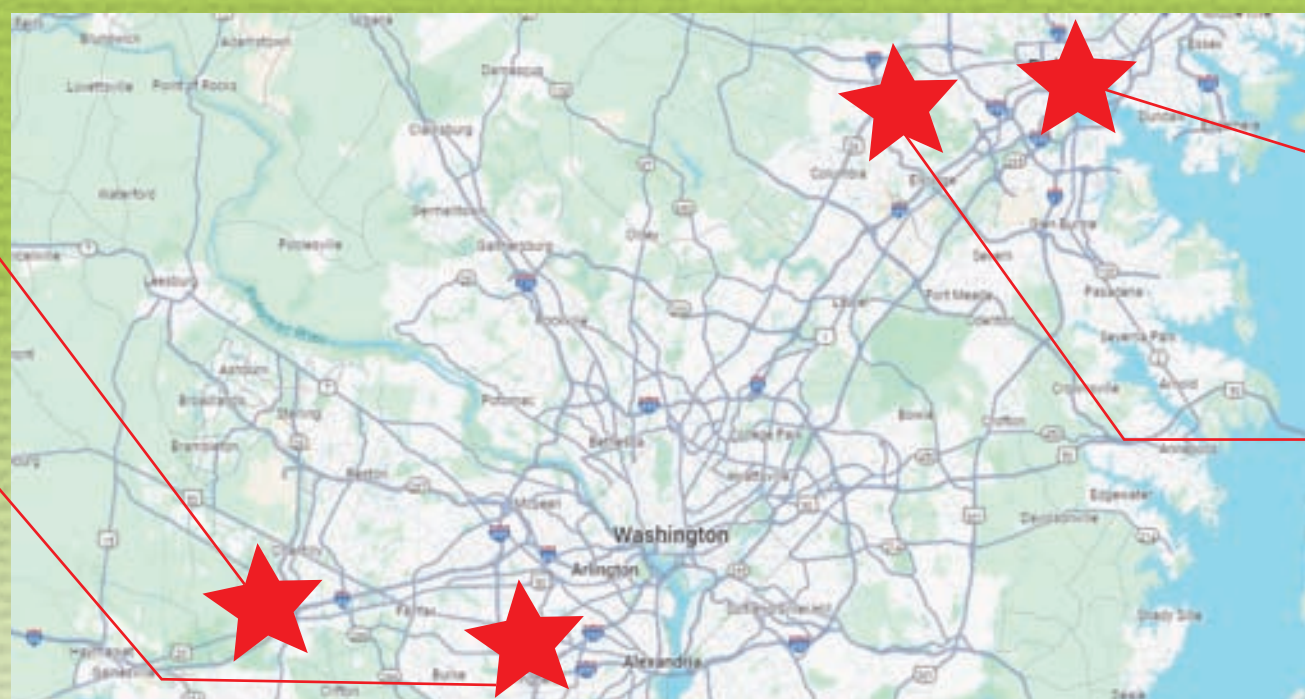
상담예약: 703-973-5900

* 매주 토요일 상담합니다 [예약에 한함]

매주 토요일 9AM~4PM

엘리콧시티 롯데플라자 내 만남의 장소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 메디케어 플랜 변경기간 2024년 10월 15일~12월 7일



센터빌

14631 Lee Highway, #214,
Centreville, VA 20121
던킨 도넛 빌딩 2층

애난데일

7003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

볼티모어

425 E Federal St.,
Baltimore, MD 21202
Greenmount 시니어 센터

엘리콧시티

10176 Baltimore National Pike,
#201,
Ellicott City, MD 21042
시루와 같은 건물 2층



오 향 제
703-973-5900



Jenny Oh
703-642-0305



Elizabeth Kim
703-642-7578



Jennifer Chung
410-698-6877



Michelle Kim
703-337-0910

26년의 경험과 실력

코너스톤 종합보험

Fairfax

(703) 642-0305

Richmond

(804) 767-3714

Ellicott City

(410) 698-6877

Tidewater/Newport News

(757) 941-7216

31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없!
최저가 유심/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한국유심 \$50
유럽유심 \$50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여행사USA 실시간상담!

번역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민권

미동부 투어가이드
에이전트(센터빌지점)

원더풀투어는 탑여행사의 전문인솔자가 모시고 떠나는 업그레이드된 항공 여행입니다.

남부 카리브해 크루즈

볼티모어 출발

12박13일 12/7~12/19 **파라**

\$1390부터 (인사이드)

원더풀투어
Wonderful TOUR

탑여행사 전문 에이전트에게
직접 문의하세요!

703.663.8534

레나 고

윤태웅

Wonderful TOUR

2024~25 Yearly Schedule

12/07~12/19 남부카리브해 크루즈 (파라)
12박13일 \$1390부터(인사이드)

12/22~12/28 크리스마스 특선 북프랑스+벨기에
6박7일 \$2490+항공

12/25~12/31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6박7일 \$2390+항공

<p>1월</p> <p>파타고니아</p> <p>남극과 가장 가까운 '지구끝' 천국과 우주가 공존하는 여행자들의 지상낙원</p> <p>10박11일 1/14~1/24 \$6,790 +항공</p>	<p>3월</p> <p>브라질 아르헨티나</p> <p>7박8일 3/17~3/24 \$3,190 +항공</p>	<p>4월</p> <p>동유럽 & 크로아티아 발칸</p> <p>13박14일 4/30~5/13 \$4,590 +항공</p>	<p>1월</p> <p>신비의 인도</p> <p>인도의 수도 델리, 타지마할의 아그라, 핑크시티자이푸르, 파테푸르시크리</p> <p>12박13일 1/28~2/9 \$3,390 +항공</p>	<p>3월</p> <p>페루 일주</p> <p>Hola! 특별한 유산의 나라 페루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p> <p>6박7일 3/23~3/29 \$2,990 +항공</p>	<p>5월</p> <p>그리스 & 튀르키예</p> <p>*산토리니 옵션</p> <p>10박11일 5/6~5/16 \$2,990 +항공</p>
<p>2월</p> <p>코스타리카</p> <p>국토가 국립공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멋진 자연풍경을 자랑하는 곳!</p> <p>4박5일 2/4~2/8 \$1,990 (항공포함)</p>	<p>3월</p> <p>일본</p> <p>벚꽃축제 & 맛기행</p> <p>9박10일 3/27~4/5 \$3,990 +항공</p>	<p>5월</p> <p>발칸 크로아티아</p> <p>아름 현대사를 안고도 때문치 않은 자연의 간직하고 있는 발칸과 중세도시의 품격 있는 건축물이 압권인 크로아티아</p> <p>6박7일 5/7~5/13 \$2,990 +항공</p>	<p>2월</p> <p>이집트 나일강 크루즈</p> <p>9박10일 2/17~2/26 \$3,590 +항공</p>	<p>4월</p> <p>남프랑스</p> <p>수세기 역사를 보유했으며 문화와 예술의 나라로 불리는 프랑스의 도시를 한번에 둘러보는 여행</p> <p>*봄방학 특선</p> <p>6박7일 4/14~4/20 \$2,990 +항공</p>	<p>5월</p> <p>스페인 & 포르투갈</p> <p>10박11일 5/13~5/23 \$3,390 +항공</p>
<p>2월</p> <p>아프리카 & 두바이</p> <p>13박14일 2/20~3/5 \$9,850 +항공</p>	<p>4월</p> <p>정통 서유럽</p> <p>4/23~ 5/03 5/20~ 5/30 9/09~ 9/19 10/09~10/19 \$3,590 +항공</p>	<p>6월</p> <p>아이슬란드</p> <p>지구상의 최북단 청정지역 아이슬란드 빙하, 화산, 온천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 새로운 경험이 될 겁니다.</p> <p>8박9일 6/3~6/11 \$5,690 +항공</p>	<p>3월</p> <p>남미 일주 (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p> <p>12박13일 3/17~3/29 \$5,490 +항공</p>	<p>4월</p> <p>정통 동유럽</p> <p>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특급 동유럽 관광은 유럽의 또 하나의 역사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상품입니다.</p> <p>8박9일 4/30~5/8 \$3,390 +항공</p>	<p>6월</p> <p>스위스 알프스</p> <p>취리히를 시작으로 바젤-사프하우젠 등 스위스 일주를 한번에~</p> <p>8박9일 6/10~6/18 \$4,590 +항공</p>

고품격 고국일주

10박 11일 **\$2990**+항공

1차 3/25~4/04
2차 4/15~4/25
3차 6/17~6/27 (영어)
4차 9/16~9/26
5차 10/14~10/24

특선

1. 워싱턴 최초 디렉스 28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2. 모든 옵션 포함
3. 최고급 호텔 숙박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4. 고객 입맛을 고려하여 특별히 엄선한 업그레이드된 식사

서울/군산/전주/보성/순천/여수/광양/하동/진주
거제/부산/울산/경주/삼척/정동진/강릉/속초/제주

동남아 여행

방콕/파타야 \$590+항공
푸켓 \$599+항공
하노이/하롱베이 \$590+항공
다낭 \$499+항공
대만 \$690+항공
싱가포르 \$790+항공

일본 여행

동경 \$999+항공
오카자키 \$999+항공
일본전환일주 \$2690+항공

크리스마스 특선

라디오시티 리켓쇼

일년에 단 한 시즌만 공연하는 미국 최고의
크리스마스 공연 라디오 시티 스펙타클러 쇼 관람

12/23~24 **1박2일 \$499**

스테이크 특식 저녁,
브루클린 덤보 이경 포토타임

핍스기빙 특선

뉴욕 핫 플레이스

썸릿, 베슬, 리틀 아일랜드

11/29일(금) 1박2일 **\$450**

성극 다니엘

+에미쉬마켓 당일

11/7, 11/14, 12/12 **\$199**

동부관광

미동부 뉴욕-브루클린 덤보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호텔 숙박

매주 **일출발** 3박 4일 **\$899**

5박 6일 **\$1350**

뉴욕 동부 명 해안 투어

뉴욕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호텔 숙박

매주 **일출발** 2박 3일 **\$650**

1박 2일 **\$399**

참여행사 당일관광

워싱턴대사 \$100
루레이동굴 \$125
DC런치크루즈 \$169(중주) \$199(주말)

서부관광

미서부

서부의 주요 도시와
3대 캐년까지 일출 여행

일출발 8박 9일 **\$1500**+항공

서부 4대 캐년
5박 6일 \$990+항공 **일출발**

5대 캐년+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일출발**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일출발**

알래스카
6박 7일 \$1550+항공 **일출발**

엘로스톤
3박 4일 \$930+항공 **일출발**

캐나다 록키
4박 5일 \$1190+항공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703.712.7151
T. 571.405.6540

교육 & 연예/문화 Sports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JoongAng Ilbo

Tuesday, November 5, 2024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소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량있는 양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t.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네덜란드 명문의대, 추첨으로 의대생 선발

닥터로드(상) | 의료선진국 의사 양성 현장을 가다

의료강국 네덜란드의 의대교육
“추첨해도 의료 질 안 뒤떨어져”
의대생 “시골병원 근무할 생각”

글로벌 의대 100위내 대학
네덜란드 7곳, 한국은 2곳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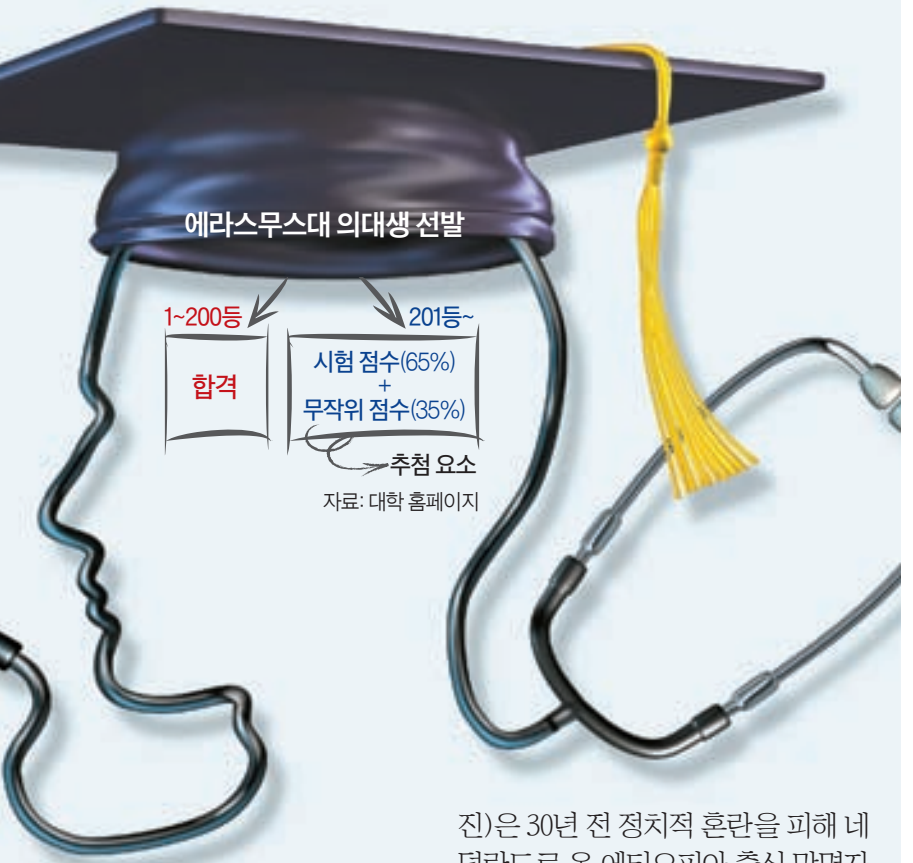
“성적순으로 의사가 돼야 한다는 건
신화다.” 네덜란드 로테르담 에라스
무스대 의과대학 마틴 프렌즈 교수는
“1등만 의사가 되는 시스템이 꼭 옳은
건 아니다”며 ‘신화(myth)’라는 표현
까지 썼다. 의대 교육부학장인 그는 의
대생과 병원 직원 선발·교육을 담당하
다. 지난달 20일 만난 그는 “성적이 조
금 낮아도 다양한 학생을 뽑는 게 중
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신입
생을 ‘추첨’으로 뽑는다. ‘아우슬라
흐 엔 로팅(Uitslag en Loting·성적
과 추첨) 방식이다. 400명을 뽑은 올
해 지원자는 1000여 명이였다. 200명
(1~200등)은 성적으로, 나머지 200명
은 추첨으로 뽑았다. 그는 “의사는 사
회 전체를 위해 양성하는 것”이라는
대학 교육 목표를 제도 도입 배경으로
들었다.

해의 선진국들도 의사 양성 문제를
놓고 고민이 깊다. 의대들은 그런 고민
에 더해 사회적 목표까지 담아내 의사
를 키우는 ‘닥터 로드’를 개척하고 있다.
에라스무스대 의대의 ‘로팅(추첨)
시스템’도 그중 하나다. 마틴 교수는
“복잡한 연구와 수술을 하는 의사는
일부이고, 대부분은 사회에 참여해 시
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관리자에 가깝

다”고 말했다. 당뇨병 노
인에게 식단을 조언
하고, 다른 문화권 출
신 환자의 건강 고민을 들어줄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의사는 각
자 자리에서 의료의 ‘엔진’ 역할을 한
다. 성적 좋은 ‘과잉 성과자’만 의대에
모이면 특정 과목이나 업무를 기피하
는 경향이 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네덜란드의 8개 의대 중 최상위권
인 에라스무스대 의대의 올해 신입
생 200명은 성적(65%)
에 무작위로, 즉 추
첨으로 주어진 점수
(35%)를 더해 선발
됐다. 마틴 교수는 “신
입생 100%를 추첨으로 선
발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그
는 추첨이 인구 다양성을 가장 잘 반
영하는 공정한 제도라고 믿는다. 네덜
란드에서도 의사는 명예와 소독이 보
장되는 인기 직업이다.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 보건의료 통계(2024)에
따르면 네덜란드 의사 임금(봉직의 기
준)은 OECD 회원국 중 1위다. 그렇다
보니 ‘능력주의’를 원하는 목소리도
있다. 레이든대 의대 학생 세야 알레미
르는 “추첨제가 사회·경제적 평등을
지향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에게 그 노력이 헛되
다고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네덜란드에서도 추첨제를
둘러싼 논란이 있다. 1972년 일부 대
학이 시작한 추첨제는 2017년 모두
폐지됐다가 지난해 일부 대학에서 부
활시켰다. 다음 학년도(2025~2026)
신입생을 추첨으로 뽑을 호르닝언 의



글 쓰는 순서

- 상 환자와 소통 배우는 네덜란드 의대
- 중 섬에 살 의사 키우는 일본 의대
- 하 노벨의학상 도전하는 의대생들

대 교육·훈련 담당 부학장인 프로드
인 마리케 슈어만스는 “선발 시스템
의 무의식적 편견으로 인해 학생이 점
점 유사해진다”며 “네덜란드의 지배
적 가치관을 갖고 자란 학생은 무의식
적으로 다른 배경의 환자에게 무능할
수 있다”고 추첨제 도입 취지를 설명
했다.

자유대 의대 2학년 월데 마리암(사

진)은 30년 전 정치적 혼란을 피해 네
덜란드로 온 에티오피아 출신 망명자
의 자녀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했고, 고교를 슘마쿰라우데(최우
등)로 졸업해 의대에 진학했다. 그는
다양한 배경의 환자를 만나 소통하는
취지의 커리큘럼에 따라 지난해 카리
브레의 신티마르턴섬에 있는 한 병원
에서 한 달간 인턴(6학년 수업)으로 일
했다. 환자를 돌보며 느낀 바를 에세이
로 쓰게 한 뒤 전문가답게 했는지 등
을 평가한다.

환자가 강의하는 수업도 있다. 안스
테르담대 의대생인 엠마 바니스는 ‘임
상 강의’를 자신이 들었던 최고 수업
으로 꼽았다.

▶특별취재팀
천권필·최민지·이후연·정은혜·서지원 기자
▶2면 ‘닥터로드’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센터빌
첸들리

교통사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캐시플랜, 각종 의료보험

진료 내용

진료 과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예약환자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1 네덜란드 에라스무스 의대생들이 지난 4월 어린이 병원에서 '테디베어 의사의 날'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2 에라스무스 의대생들이 로테르담의 한 시장에서 백신 접종에 관한 캠페인을 하고 있다. 3 왼쪽부터 마틴 프렌스 에라스무스 의대 교수와 이 대학 재학생 에나벨 브랜트, 프레데리크 베르빅, 서지원 기자 (사진 에라스무스 매거진)

환자가 의대생에 경험 강의... 공감능력 배우는 네덜란드

▶ 1면 '닥터로드'에서 이어집니다

당뇨·심장병·정신병 등을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환자가 치료 효과 및 병원 생활을 들려주는 수업이다. 수업은 담당 교수가 관련 의학 지식을 설명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런 방식의 교육은 의대생이 진로를 선택할 때도 영향을 준다. 바니스는 "환자에게 시간을 더 여유롭게 쓰고 싶어 소도시나 시골병원에 근무할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의학 교육 협회 장(2006~2012)을 지낸 올레 텐 케이트 위트레흐트대 의대 명예교수는 지난 달 19일 "성적순으로 뽑힌 집단이 추천으로 입학한 집단보다 재학 중 성적은 다소 나은 경향이 있지만, 졸업 후에는 둘 간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며 "추천으로 뽑은 네덜란드 의료인력이 뒤떨어진다는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영국 대학평가기관 QS의 '2024년 학문별 세계 대학 순위' 중 의학 분야 100

위 안에 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대(29위), 에라스무스대(40위), 위트레흐트대(58위), 레이든대(61위), 마스트리히트대(77위), 흐로닝엔대(83위), 자유대(98위) 등 7곳이 들었다. 한국은 서울대(47위), 연세대(74위)뿐이다. 네덜란드는 한국과는 교육 시스템이 달라 추천제가 가능한 면도 있다. 중·고교 진학 단계에서 성적 우수 학생(전체의 20~30%)이 학문·연구 중심 대학 진학 교육과정(VWO)을 선택

하고, 이를 이수해야 의대를 지원할 수 있는 구조다. 올레 교수는 "의대 지원자가 9000명이라면 7000명 정도는 (의대에 갈) 자격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에라스무스대 의대 2019년 입학생 미힐 반 덴 아커는 "중·고교 수학 등의 성적 차이가 의사가 되고 못 되고를 가를 정도는 아니다"며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공평하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세계 100위권 의대' 한국 2곳, 네덜란드 7곳
*QS 세계 대학 랭킹 의학(Medicine) 부문

순위	대학
29	암스테르담대 University of Amsterdam
40	에라스무스대 Erasmus University Rotterdam
47	서울대
58	위트레흐트대 Utrecht University
61	레이든대 Leiden University
74	연세대
77	마스트리히트대 Maastricht University
83	흐로닝엔대 University of Groningen
98	자유대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104	라드바우드대 Radboud University

자료: 영국 QS(Quacquarelli Symonds)

"미 의대, 하버드 만점자도 탈락" 중요한 건 다양성·형평성·포용성

(Diversity·Equity·Inclusion)

미국의대협회의 'DEI 입시정책' 부모 직업·사회경제적 계층 등 다양성 기여 여부로 1차 평가 "환자 잘 이해해야 의료 질 올라"

하는 AAMC가 내세우는 가치다. 의대마다 DEI 센터와 담당 교수가 있다. 그는 "미국에선 인종·계층이 다양한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1970년대 입시부터 소외계층 출신 의대생을 늘리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는 DEI 정책의 일환이고, 나도 이민 저소득 가정에서 자란 1세대 라틴계 의사"라고 소개했다.

대학에 제공한다. AMCAS 지원서는 1차 평가의 당락을 가를 만큼 중요하다. 단순한 '스펙' 나열을 넘어 지원자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의대의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구성돼 있다.

공부를 성적 최상위권만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며 "성적이 월등히 좋은 한인도 상대적으로 불리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하버드대 출신에 GPA·MCAT 만점인 한인도 의대에 떨어진 적이 있다고 전했다.

미국에서도 의사는 인기 직종이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의대 지원자가 늘었다. 최근에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입시제도를 둘러싼 논쟁도 벌어졌다.

"미국 의대에선 '의사가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의료의 질이 높아진다'고 믿는다." 미국의과대학협회(AAMC) DEI 최고책임자 데이비드 아코스타의 말이다.

의학전문대학원 체제인 미국 의대 교육은 학부 학점(GPA)과 MCAT 점수, 전인적 평가(Holistic Review)를 통해 1차 합격자를 선발한다. AAMC는 객관적 지식 평가 근거(MCAT 점수)와 전인적 평가의 근거가 되는 1차 공통지원 서류(AMCAS) 양식을 각

2024학년도 AMCAS 지원서를 보면, 부모 직업과 가계소득 범위, 사회경제적 불리한 계층(SES Disadvantaged) 여부 등을 표시하는 항목이 있다.

미국 의대는 이렇게 뽑은 학생에게 DEI 교육을 따로 한다.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하버드대에 "인종적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을 폐지하라"고 판결했는데, 소송을 제기한 건 동양계 학생단체였다. 의대를 겨냥한 판결은 아니었지만 AAMC는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AAMC는 "인종을 넘어 다양한 계층·배경의 의대생을 선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별취재팀

1 위싱턴 중앙일보

좋은 아침! 좋은 신문! 중앙일보

SELFOTO STUDIOS 나만의 사진관 **가을 특선 10월 한달 동안 사진 2장 추가 무료 서비스!!!**

여권 사진 | 가족 사진 | 커플 사진 | 반려 동물 사진 | 영정 사진 | 아기 사진 | 기념일 사진

예약 문자 / 전화: 703-400-7099
14260M Centreville Square, Centreville, VA 20121

추억만들기!! 나만의 맞춤형 사진관을 경험해보세요!! 인생샷 찍어보세요!!

온라인 예약 www.Selfotostudios.com

메디케어!

풍부한 경험과 신뢰의 에이전트 **프라임 보험이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프라임 보험(조앤김)
상담전화 (703) 861-9923
14641 Lee Hwy #D3, Centreville, VA 20121
7535 Little River Tupk. Suite 204, Annandale, VA 22003

This is an advertisement.

[2025 메디케어 변경 및 등록]

메디케어 플랜 변경기간: 2024년 10월 15일 ~ 12월 7일

2025년 플랜에 대한 상담 및 등록

- 눈높이 상담 • 쉬운 설명 • 보험료 및 의료혜택 비교

현재 메디케어 플랜 가입자 / 1960년생이신 분들 / 65세 이후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들

파트 A & B	파트 C	파트 D
서플리먼트, 플랜 A,B,G,K,L,N	타주에서 이사오신 분들	
이중 특별 필요 플랜		
메디케어 (파트 A, B) + 메디케어ID (모든 메디케어ID 대상) 추가 혜택 VA 지역, MD 지역		

"We do not offer every plan available in your area. Currently we represent [X] organization which offer [X] products in your area. Please contact Medicare.gov, 1-800-MEDICARE, or your local Statw Health Insurance Program to get information on all of your options."

Sponsored by **소망보험**

'보고'가 아닌 '토론'을 해요

정김경숙의
실리콘밸리노트

한미그룹 브랜드본부 부사장
전 구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로이스 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방에서는 우리 서로 ‘님’으로 불러 봐요. ‘보고’가 아닌 ‘토론’을 해요. 좋은 대화는 잘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설득 당하는 사람이 만듭니다.” 새로 근무하게 된 직장 사무실 한쪽에 붙여놓은 문구다.

30년 직장생활 만에 처음으로 한국 회사에서 일하게 되면서 가장 걱정한 것 중의 하나가 조직 문화였다. 그 어떤 회사보다 더 수평적이고 개방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가진 구글 안에서 ‘가장 구글스럽다’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틀에 얽매이지 않고 늘 새로운 것을 시도해왔기 때문에 그 걱정은 더 컸다. 또한 실리콘밸리 구글 디렉터라는 타이틀을 뒤로하고 1년 반을 마트 알바생과 바리스타 같은 시급 노동자로 고정관념을 깨는 삶을 살아왔던 터였다. 이렇게 ‘비전통적’인 나에게 그룹 전체 대내외 브랜드를 이끌어 가는 역할을 맡긴 회사로부터 “그래서 로이스님과 일하고 싶다. 그냥 로이스님답게 일해달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안심이 되었고 용기가 생겼다.

기업 브랜드는 회사빌딩을 장식하는 로고나 벽 한쪽에 붙어있는 경영 슬로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회사 구성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평소 생각에 입사하자마자 구성원들을 만나기 시

작했다. 두 달 동안 150여명과 만나 얘기를 나누었다. 그 결과 회사에 대한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소로 연봉만큼 중요한 것이 좋은 기업 문화와 그것이 주는 자부심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인스트엔영(EY)과 딜로이트 연구에 따르면 기업문화의 가치 중 다양성, 포용성, 유연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런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문화는 세상을 바꾸는 혁신의 원동력이기도 했다. 특히 요즘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에서는 기업문화 가치가 충족되었을 때 직장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직률이 현저하게 낮아진다. 젊은 직장인들 80% 이상이 자신의 문화 가치와 일치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한 보고서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좋은 회사 문화는 아침 막히는 도로에서 시달리거나 부대끼는 지하철을 타면서도 기분 좋게 출근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첫 출근을 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내 사무실 방문을 열어 놓는 일이었다. 자동으로 닫히는 문을 늘 문받침으로 받쳐 놓으니 시설팀에서 자동 개폐 장치를 아예 떼어 주었다. 문을 항상 열어놓으면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노크하며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안녕하세요” 하면서 바로 얘기를 걸 수 있다. 직원들과의 심리적 벽을 없애고 접근성도 높인다.

그래도 늘 부담스러운 건 내 방, 소위 ‘임원방’에서의 회의다. 직원들이 편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다. 스포츠 경기에서 홈계임과 원정계임이 있는 것처럼, 내 방에서 회의하면 그 자체로



유연성, 다양성, 포용성 등이 MZ세대 붙잡는 기업문화 특징 수평적 회의 분위기부터 중요

직원들은 벌써 수평적이지 않은, 기울어진 경기장에서 게임하는 듯한 위축감이 들지 않을까 우려됐다. 회의실을 따로 잡는 게 번거로워 임원방에서 회의를 하긴 하지만, 늘 직원들이 응원군 하나 없는 원정 게임에 와있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하고 있다. 토론할 때 정말 ‘계급장 떼고’ 얘기할 수 있도록 말이다. 이런 의미로 내 방 한 귀퉁이에 ‘로

이스방 오픈 대화 규칙’ 문구를 써놓은 것이다. 내 방을 처음 방문하는 직원들은 “로이스 부사장님”을 그냥 “로이스님”으로 부르는 것을 애써해하지만, 이내 서로 ‘님’자 호칭에 익숙해지면서 저절로 하하, 허허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양방향 대화가 되고 있다.

또 여건이 허락된다면 종종 걷는 회의를 한다. 통상 회의에서는 슬라이드와 필기구가 동원되면서 양방향 토론보다 발표자의 일방적 독백이 되기 쉽다. 걸으면서 회의를 하다 보면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손에서 펜을 놓고 오롯이 대화 내용에만 집중하며 이야기할 수 있다. 마침 회사 근처에 올림픽공원이 있으니 걷기 회의로 딱이다. 함께 걸으면 위계가 자연스럽게 녹아내리고 수평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거기에 운동도 되니 일석이조다.

입사 전에 괜한 걱정을 했다. 할 정도로 회사 내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리더십도 있고 틀을 깨는 사람들도 꽤 있다. ‘책임을 지는 것을 싫어한다, 승진을 거부한다’ 등으로 매스컴에서는 일부 MZ세대의 직장 트렌드를 전제처럼 얘기지만, 젊은 세대들의 생각은 다양하다. 한가지 공통적인 것은 직장생활은 즐거웠으면 하고, 회사에 대해 자랑하고 싶어한다. 일하기 좋은 직장, 자랑하고 싶은 직장, 이것이 내가 하는 브랜드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런 사내 브랜드를 일구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며, 언제부터 ‘시작!’하고 될 수 있는 일은 더더욱 아니다. 작은 씨앗도 자라고 커지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네이티브 잉글리시

'캐리어'는 콩글리시

(여행가방)

많은 사람이 캐리어는 콩글리시가 아니라 실제 영어에서 쓰는 단어로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완전한 콩글리시다. 그렇다면 캐리어의 올바른 영어 단어는 무엇일까? 보통 영어에서는 'suitcase'라고 하거나, 기내 수하물용 크기의 가방은 'carry-on suitcase'라고 한다.

캐리어를 여행 가방으로 오해하는 것도 이해가 된다. 여행 가방은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용도이기에, 무언가를 운반하는 사람이나 사물을 뜻하는 영단어 'carrier'와 연관 짓기 쉽기 때문이다. 사실 영국식 영어에서 비슷한 의미로 파생된 단어가 있다. 영국에선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플라스틱 가방이나 비닐봉지 등을 '캐리어백(carrier bag)'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캐리어(carrier)가 공항이나 비행 관련해서 쓰일 때는 완전한 다른 의미가 된다. 승객 또는 물품 운송에 종사하는 항공사나 수송 회사를 의미한다. 즉, 영어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혹은 배송 회사인 페덱스(FedEx)가 carrier에 해당된다. 샘소나이트와 같은 여행 가방은 carrier가 아니다.

다른 장소처럼 공항에서도 미국식 영어와 영국식 영어가 종종 다르게 쓰인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마도 비행기에 관한 용어일 것이다. 비행기를 설명하는 영단어 'plane'은 국제적인 약어로 통용되고 있지만, 이 단어의 긴 버전은 미국 영어와 영국 영어에서 각각 다르다. 미국에서는 'airplane'이라고 부르지만, 영국 및 기타 영국 영어권 국가에서는 더 오래된 용어인 'aeroplane'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이제 공항에서 숙소까지 이동해야 할 것이다. 이때 많은 한국인 여행객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표현이 있다. 택시에 관한 용어다. 한국어에서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택시를 이용할 때도 동사 '타다'를 사용해 '택시에 타다'고 표현한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타다'를 의미하는 'ride'를 버스나 지하철을 탄다는 표현을 할 때 사용할 수 있지만, 택시 타기에 사용하면 어색해진다.

택시를 탄다는 동사는 'ride'를 쓰는 대신 'take'를 쓰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공항에서 택시를 찾고 있다면 "I'm looking to take a taxi.(택시를 타고 싶어요)"라고 말하거나 "Where can I take a taxi from?(어디에서 택시를 탈 수 있나요?)"이라고 물어보면 된다.

짐 불리 코리아중앙데일리 에디터

이우영의 과학 산책

소행성 24947 하우스도르프

어둠이 내려앉은 거실 탁자 앞에 두 사람이 말없이 앉아 있다. 탁자 위에는 노란색 통지서가 놓여있다. 날이 밝으면 그들은 죽음의 수용소로 떠나야 한다. 1942년 1월 25일, 친구에게 마지막 작별 편지를 썼다. “당신이 이 편지를 받을 때쯤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독일 수학자 펠릭스 하우스도르프(1868~1942) 부부의 생의 마지막 밤 이야기다. 독일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하우스도르프는 어렸을 때부터 문학에 재능을 보였으나 부모의 권유로 대학에서 수학을 공부했다. 졸업 후 그는 약 8년간 폴 뮌그레라는 필명으로 문학작품 활동을 하다가, 1904년부터 수학에 몰두하여 위상수학 분야에서 뚜렷한 발자국을 남겼다. 그가 창시한 ‘공간’과 ‘차원’은 수학적 아름다움의 표상이다. 1921년부터는 본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이때는 이미 저명한 수학자가 되어있었다. 그러나 1934년에 등장한 나치 정

부가 유대인을 적대시하면서 나치 학생들이 하우스도르프의 수업을 거부했다. 결국 그는 이듬해 학교에서 강제퇴직 당하고 말았다. 홀로코스트가 시작될 때도 그는 집에 숨어서 논문을 썼다. 1941년이 되자, 본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차례로 집단 학살 수용소로 보내졌고, 하우스도르



프 부부는 수용소로 떠나기 전날 밤 집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어느 두 지점이든 서로 분리된 율타리 영역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하우스도르프 공간’이라고 한다. 하우스도르프가 소개해서 그의 이름이 붙었다. 우리가 사는 이 안락한 세상도 그 한 예다. 그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새삼 일깨워준 뒤 자신은 슬픈 운명의 별이 되어 하늘로 떠났다. 그 별 이름은 ‘소행성 24947 하우스도르프’. 정처 없이 떠도는 그 별을 생각하며 그에게 깊은 연민이 느껴진다. 오로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행해지는 차별과 혐오는 언제 인간사에서 사라질까. 고등과학원 HCMC 석학교수

혈관이 부르는 첫번째 이름

- 전통솔잎으로 연구 개발된 세종송보감
- 고농축캡슐 타입으로 개발된 GMP 기준 솔잎농축캡슐
- 임상으로 인정되고 식약처(KFDA)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세종 송보감

- 혈액순환 장애로 도움이 필요한 분
- 당뇨, 혈압, 고지혈증 등 혈관계 건강이 필요한 분
- 혈액순환, 혈관청소가 필요한 분

문의 (703) 256-7671 | www.sejongbiotech.us

서울 미극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저서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임상경력 50년
-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 *VA, MD, DC 면허 소지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가스, 설염, 부인과 하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카락이 빠지는 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29 White Oak 도서관
EXIT 28A
650 495

크레딧 카드 환영

TV Travel Channel
서울미극한방병원 방영



퀘스트브리지(QuestBridge)란 무엇인가요? ①

이번 칼럼에서는 특별한 학생들을 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지금 시기적으로도 자주 문의가 들어오는 퀘스트브리지 내셔널 칼리지 매치(QuestBridge National College Match)에 관하여 알아보자. 대학 학비에 대한 부담이 크게 다가온다면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위한 전액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을 지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퀘스트브리지 프로그램은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합격자는 4년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닐 수가 있다. 자격이 되는 학생들은 용자를 전혀 받을 필요가 없으며 부모가 부담해야 할 돈도 없다. 혜택이 좋은 만큼 경쟁률도 치열하니 11학년때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 프로그램과 파트너를 맺은 대학들은 학생이 대학을 다니는 동안 매년 장학금을 갹신해 준다.

▶질문: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내셔널 칼리지 매치 프로그램에 지

원하기 위해서는 고교 졸업 혹은 2025년 여름학기 전 졸업예정자면 된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아닌 학생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 프로그램 파트너 대학 중 일부 대학만이 체류 신분 관계 없이 장학생을 선발한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대부분 파트너 대학들은 연방정부, 주정부 기금을 장학금 일부로 충당하기 때문이다. 칼텍과 콜로라도 칼리지, 버지니아 대학 등은 체류 신분과 관계 없이 장학생을 선발한다.

▶질문:학업능력이 중요한가요?
-당연히 저소득층이라고 무조건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아너스, AP, IB 등 도전적인 과목들에서 A학점을 취득했어야 하며 클래스 석차가 상위 5-10% 안에 들어야 한다. SAT나 PSAT 점수는 1,600점 만점에 1,310점, ACT는 36점 만점에 28점 이상은 돼야 한다. 여기에 AP, IB, SAT 서브젝트 테스트 점수도 제출하는 게 좋다. 우수한 작문실력을 갖춰야 하고



줄리 김
탑에듀피아 대표

에세이와 교사 및 카운슬러 추천서를 필요로 한다. 퀘스트브리지 장학생 선발 과정은 대학 입학사정 방식과 비슷하다. 학교 성적은 물론 학력평가시험 점수, 과외활동, 에세이, 추천서 등을 모두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지원서를 준비할 때 디테일하고 철저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질문:소득기준도 있나요?
-소득도 중요한 자격기준 중 하나이다. 4인가구 기준 연 6만5,0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물론 이 소득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재정적으로 곤

란을 겪고 있다는 확실한 사실을 받을 경우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한데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questbridge.org)에 들어가 찾아볼 수 있다.

▶질문:어떤 대학들이 파트너인가요?
-아이비리그를 포함 내로라하는 명문대 38곳이 파트너 대학이다.

앰허스트 칼리지, 보든 칼리지, 브라운대, 칼텍, 카레톤칼리지, 클레어몬트 매케나 칼리지, 콜비 칼리지, 콜로라도 칼리지, 컬럼비아대, 다투머스 칼리지, 데비스 칼리지, 듀크대, 에모리대, 그린 벨칼리지, 해밀턴 칼리지, 헤이버포드 칼리지, 맥칼리스터 칼리지, MIT, 노스웨스턴대, 오벌린 칼리지, 포모나 칼리지, 프린스턴대, 라이스대, 스크립스대, 스탠포드대, 스와스모어 칼리지, 터프츠대, 시카고대, 노틀담대, 펜실베이니아대, USC, 버지니아대, 밴더빌트대, 바사칼리지, 워싱턴 앤 리 대학, 웨

슬리칼리지, 웨슬리안대, 윌리엄칼리지, 예일대 등이다.

▶질문: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칼리지 매치를 신청하기 위해 알아 둘 것 중 하나는 바로 '랭크'(rank)이다. 지원자가 이 프로그램의 파트너 대학 중 원하는 대학을 순위별로 골라 제출하면 심사를 통과한 학생은 대학별 추가 심사를 통해 합격한 대학 중 자신이 택한 순위 중 가장 높은 대학과 연결돼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게 되는 것이다. 현행 규정은 12개 대학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합격할 경우 연결된 대학에 반드시 입학(MIT, 프린스턴, 스탠포드, 예일 제외)해야 하는 만큼 선정과정에서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곳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반드시 12개 대학을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 만큼 본인이 결정할 사항이다. (다음주에 계속)
▶문의 : 703-576-7803,
Email : topedupia@gmail.com

에듀 포스팅

대입 추천서는 학생 혼자 준비 못 해 교사와 관계 구축 등 부모가 지원해야

대학 입시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많은 수험생과 부모들이 추천서 작성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특히 조기 지원 마감일이 가까워질수록 좋은 추천서를 확보하는 것은 대입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학생이 다른 입시 준비 요소는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반면, 추천서는 교사와 카운슬러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신경을 쓰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단순히 추천서를 받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대학이 선호하는 '좋은 추천서'를 받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1. 미리미리 기본
학생이 지원하는 학교의 마감일에 맞춰 급하게 준비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훌륭한 추천서는 단순히 학생의 성적이나 과외활동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의 깊은 관계와 학생의 독특한 특징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이어야 한다.

2. 어떤 교사에게 요청하나
추천서의 성공 여부는 교사 선택에 달려 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다음의 요소를 고려해 추천서를 요청할 교사를 선택해야 한다.

▶학생의 성장을 목격한 교사
성적이 뛰어난 교사보다, 학생의 성장과 노력을 잘 이해하는 교사가 더 좋은 추천서를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10학년 때 학업 성취도가 낮았어도 11학년에 큰 발전을 보인 경우, 이를 잘 알고 있는 교사라면 학생의 성장 가능성과 끈기를 강조할 수 있다.

▶과목의 중요도와 성격
학생의 지원 전공과 밀접한 과목 교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STEM 전공에 지원할 경우 수학 또는 과학 과목의 교사가 적합하며, 문학이나 사회학 전공의 경우 영어 또는 역사 교사의 추천서가 더 효과적이다.

▶신뢰할 수 있는 추천서 제공자
교사가 바쁜 학사 일정 때문에 제대로 된 추천서를 작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추천서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교사가 학생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학생을 위해 시간을 내어 정성스럽게 써줄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3. 대학이 보는 좋은 추천서
대학이 기대하는 좋은 추천서는 단순한 칭찬으

로 가득한 것이 아니다. 이는 학생의 학문적 능력 뿐만 아니라, 인간적 면모와 학업 외의 성과를 균형 있게 평가하는 문서이다. 교사와 카운슬러가 사용하는 구체적인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15가지 평가 항목의 구체적 내용
교사 추천서 양식에는 학업 성취도, 지식 습득 능력, 글쓰기 능력, 수업 토론 참여도, 학습 습관, 성실도, 좌절에 대한 반응, 타인에 대한 배려, 리더십, 자신감, 동기부여 정도, 교직원 존중도, 성숙도, 자기주도적 학습, 전체 평가 등 15가지 평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각 항목을 7단계 척도로 평가하는데, 이는 평균 이하, 평균, 평균 이상, 상위, 상위 10%, 상위 5%, 상위 1%로 나뉜다. 아이비리그와 같은 명문대학에 지원할 경우, 대부분의 항목에서 상위 1% 평가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리더십, 성숙도, 동기부여 등 학업 외적인 요소에서도 탁월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

4. 카운슬러가 교사와 다른 점
카운슬러 추천서는 학업 외적인 요소와 학생의 가정환경, 개성 등을 강조한다. 교사의 추천서

가 교실에서의 학생의 모습을 주로 다루는 반면, 카운슬러는 학생의 전반적인 성장 과정과 학교 내외 활동의 균형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부모는 카운슬러와의 면담을 통해 자녀의 학업 성과 및 봉사활동, 리더십 경험, 가정환경 등을 공유하여 카운슬러가 더 풍부한 내용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5. 추천서 작성 거부당할 수도
추천서를 요청했다고 해서 모든 교사가 흔쾌히 응하지는 않는다. 학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이미 너무 많은 요청을 받은 경우, 혹은 충분히 좋은 평가를 써 주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망하지 말고, 다른 교사를 찾아야 한다. 이런 이유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러 명의 교사와 관계를 형성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대입 추천서는 학생 혼자서 준비하기 어렵다. 부모가 사전에 교사와의 관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돕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이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추천서를 받도록 부모가 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자.

세라 박 원장·AI칼리지리포트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방법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신분 문제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오직 전문가만이 귀하의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민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모르거나 잘못 해석하여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미국이민의 큰 꿈을 접어야 하는 기막힌 사연 또한 많습니다.

항상 저의 케이스를 진행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그리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이민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복잡한 이민법, 오직 이민법만을 고집하는 이재운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Jaewoon Lee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소속 • Attorney At Law
J.D. (법학박사) • Jaewoon Lee & Associates, LLC

이민생활에서 궁금한 모든 사항을 다양한 시각과 풍부한 경험으로 이재운 이민 전문 변호사가 정확하고 확실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Text, **myattorney** to 703-916-1111
"Text 로 이민상담 신청하세요!"

주요업무

- ◆ 취업이민 영주권 (EB2/EB3)
- ◆ 취업 비자 (H1-B)
- ◆ 종교 비자 (R1)
- ◆ 종교 특별 영주권 (R1/I-360)
- ◆ 투자/교역 비자 (E1/E2)
- ◆ 학생 비자 (F1)
- ◆ 주재원 비자 (L1)
- ◆ 시민권 신청 (N-400)
- ◆ 가족 초청 이민
- ◆ 결혼 이민
- ◆ 추방유예 (DACA)
- ◆ 사면준비
- ◆ 이민국 인터뷰
- ◆ 세계 각국 미 대사관 업무
- ◆ 기각된 서류 항소 및 재심사 요청
- ◆ 이민국 노동청 감사 답변
- ◆ 비자 연장 및 신분 변경

www.jaewoonlaw.com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 T. 703-916-1111 / 703-916-1215 | Fax. 703-563-6028
Jaewoon Lee & Associates, LLC | 770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502, Annandale, VA 22003 (예천 길 건너편) | E-mail : lee@jaelaw.com

메디케어

변경기간: 10월 15일 ~ 12월 7일

오바마 헬스케어

등록기간: 11월 1일 ~ 1월 15일

“개인보험, 그룹보험 플랜변경 및 새로 등록도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사업체보험



집보험



생명보험

19년의 경험으로 여러분과 함께한 KWAK & CHANG FINANCIAL INC.

에이전트 모집

건강보험 (치과, Vision), 401K, Pension 제공
경험없으신 분 환영, 라이선스 도와드립니다.



대표 **곽민우**

“언제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곽민우 종합보험

KWAK & CHANG FINANCIAL INC.

Office : 703-750-2205, 2206

Fax : 703-750-2207

Email : kcfinancial.info@gmail.com

7369 McWhorter Pl. #420, Annandale, VA 22003



대만영화 '청설' 한국판 리메이크
14년 전 신드롬... 오는 6일 개봉
"수어 쓰니, 원작보다 음악에 더 신중"
'말할 수 없는 비밀' '그 시절...' 등
대만 로맨스물 줄줄이 리메이크

대만 로맨스 영화들의 한국 리메이크판 개봉이 잇따르고 있다.

오는 6일 개봉하는 '청설'(감독 조선호)은 청각장애인 가족 속에 살아온 여름(노윤서)과 도시락을 배달하는 26살 동갑 용준(홍경)의 풋사랑 이야기다. 2010년 개봉해 2만 관객을 모은 뒤 2018년 재개봉한 동명 대만영화(2009)를 15년 만에 한국 무대로 리메이크했다.

2008년 15만 관객을 동원하며 한국에 대만영화 신드롬을 일으킨 판타지 음악 로맨스 '말할 수 없는 비밀'(2007)도 도경수·원진아 주연의 한국판(감독 서유민)으로 만들어져 내년 개봉할 예정이다. 2012년 첫 개봉 후 3차례나 재개봉한 대만 하이틴 로맨스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2011)의 한국 리메이크판(감독 조영명)은 이달 초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된 후 관객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아이돌 그룹 트와이스 다현의 스크린 데뷔작으로, 대만판 감독 구과도의 자전적 소설을 토대로 고등학교 사춘기부터 15년 간 이어진 첫사랑 이야기를 담았다.

그간 한국영화계에서 로맨스 영화는 범죄·스릴러 영화 강세에 밀려 존재감이 미약했다. 그 틈새를 10~20대 순수한 사랑을 그린 대만·일본의 청춘 로맨스가 파고들었다. 초기 붐을 일으킨 '말할 수 없는 비밀', '나의 소녀시대'(2015), '장난스런 키스'(2019) 등이 흥성도 높은 관객층을 확보해왔다.

'말할 수 없는 비밀'의 감독 겸 주연배우 저우제룬(주결륜), '나의 소녀시대'의 왕대륙 등 대만 배우들도 인기를 끌었다.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한국판의 주연 진영은 부산영화제 관



영화 '청설' (1)을 필두로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2) '말할 수 없는 비밀' 등 대만 로맨스의 한국판 리메이크작이 잇따른다. 한국영화로는 드물게 10~20대 연애담을 다뤘다는 게 특징이다. [사진 KC벤처스-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부산국제영화제]



연 로맨스 '지금 만나러 갑니다'(2018)로 260만 흥행을 거둔 제작사 무비락이 또 다시 도전한 리메이크 작품이다. '말할 수 없는 비밀'도 올 여름 캐나다 원작 오컬트 코미디 '해섬가이즈'로 177만 관객을 동원한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가 8년 전 리메이크 판권을 확보해 준비해왔다.

김원국 하이브미디어코프 대표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의 판타지·음악 코드가 좋았고 한국과도 맞닿은 정서가 있다고 느껴 판권을 구매했는데 이런 상황(대만 영화 리메이크 붐)이 올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표는 대만 영화 리메이크 개봉이 일종의 트렌드처럼 잇따르는 데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흥행이 잘 안 될 경우 후발 개봉작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지난해 전여빈·안효섭 주연의 넷플릭스 드라마 '너의 시간 속으로'는 대만 드라마 '상견니'의 한국판으로 화제를 모았지만, 싱그러운 로맨스보다 미스터리로 초점을 맞춘 각색과 빠른 전개 때문에 원작 팬들 사이에 평가가 엇갈렸다.

최근 투자가 활발해진 대만 영화가 한국 영화계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 관측이다. 대만 콘텐츠 회사 Grx 스튜디오는 올해 부산영화제 기간 열린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ACFM)에서 향후 5년간 5000만 달러(약 688억원) 규모의 영화·드라마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나원정 기자

K감성으로 리메이크 그래도 설레는 첫사랑

객과의 대화 행사에서 대만 원작을 5번이나 볼 만큼 빠져있던 차에 한국판 출연 제안을 받고 단숨에 수락했다고 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 28일 '청설' 언론시사회에서 조선호 감독은 "대만 원작의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감성을 한국 정서에 맞게 가져오려 했다"고 밝혔다.

한국판 '청설'도 청춘 연애담의 청량감을 극대화했다. 남녀 주인공 간의 대사 90%가 수어로 진행된다. 서로 눈을 바라봐야 하는 수어의 속성이 자연스럽게 사랑의 설렘을 빛낸다. 조 감독은 "수어를 쓰기 때문에 사운드·음악에 더욱 공을 들

였다. 원작 이후 사운드 기술이 더 발전한 만큼 음성이 없는 지점의 소리에 더욱 몰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대를 한국으로 옮기며 문화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은 각색했다. 한국 정서에선 언니가 동생을 위해 희생하는 게 더 설득력 있을 거란 판단에서 원작의 자매 관계도 뒤집었다.

원작 덕분에 작품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가 있는 데다 한국 정서로 변주해 색다른 재미를 줄 수 있다는 것도 리메이크가 활발한 요인으로 꼽힌다. '청설'은 일본 영화 원작의 소지섭·손예진 주

보기 없는 무결점 플레이...마다솜, 통산 3승째

KLPGA S-OIL 챔피언십 역전 우승
54홀서 보기 0개, 역대 11번째 기록
"드라이버 보완해 성적 더 낼 것"

사흘간 보기 없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친 마다솜(25)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역대 11번째 '노보기 우승'을 달성했다.

마다솜은 3일 제주 엘리시안 골프장(파72·6752야드)에서 열린 S-OIL 챔피언십 최종 3라운드에서 버디만 5개를 잡아내 함께 15언더파 201타로 김수지(28)와 함께 공동 선두에 올랐다. 두

선수들은 이어 벌어진 1차 연장전에서는 우열을 가리지 못했고, 2차 연장에서 버디를 잡아낸 마다솜이 파를 기록한 김수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마다솜은 통산 3승째를 거두면서 우승 상금 1억6200만원을 받았다. 또, KLPGA 투어 역대 11번째 노보기 우승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이 대회는 당초 나흘간 72홀 경기로 열릴 예정이었지만, 지난 1일 내린 비로 2라운드

12언더파 단독선두 임희정(24)에게 2타 뒤진 채 출발한 마다솜은 1번 홀(파5)과 2번 홀(파4)에서 잇달아 1타



KLPGA 투어 S-OIL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마다솜. '노보기'로 정상에 올랐다. [뉴스]

씩 줄인 뒤 파4 5번 홀에서 버디를 낚아 13언더파 단독선두로 치고 나갔다. 이후 버디를 추가하지 못해 한때 공동 4위까지 내려앉았지만, 후반 13번 홀

(파4)에서 완벽한 세컨드 샷으로 다시 타수를 줄여 분위기를 바꿨다. 파3 16번 홀에선 프린지 옆 러프에서 시도한 13m짜리 버디 퍼트가 떨어지면서 같은 챔피언 조의 김수지와 함께 15언더파 공동선두로 올라섰다.

정규 홀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한 마다솜과 김수지는 18번 홀(파5)에서 연장전을 치렀다. 1차 연장 결과는 모두 파. 이어 같은 홀에서 열린 2차 연장전에서 승부가 갈렸다. 김수지의 5m짜리 버디 퍼트는 홀을 비껴갔지만, 마다솜은 2.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우승을 차지했다.

마다솜은 "앞선 두 차례의 연장 경합이 큰 도움이 됐다. 무엇보다 '노보기 우승'이라는 점이 자랑스럽다. 올겨울 드라이버를 보완해 내년에는 초반부터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전북 장수 골프장에서 끝난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동아회원권그룹 오픈에선 이동민(39)이 합계 19언더파 265타로 우승했다. 통산 3승째로 우승 상금은 1억4000만원이다. 함께 7언더파 공동 25위에 오른 장유빈(22)은 최종전(투어 챔피언십) 결과와 상관없이 올 시즌 대상(7442점) 수상을 확정했다. **고봉준 기자**

사업의 성공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십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MD·DC 면허
이력
- 대외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카툰릴레이 THE SIXTH SENSE **식스센스** 오늘의 주제 골동품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11월
구
인
광
고

전기차 충전 EV 장비 전문회사

모든 전기
수리/구축/공사

LifeTime Energy
VA, MD, PA, DC, WV, DE

전화
240-316-1823

우표수집에 관심이신
분 연락 바랍니다!

우 표

우표 수집한것 팝니다
오랜동안 수집 해 온
(한국, 미국, 여러나라 우표)
귀하고, 소중한 우표들이
더 좋은 주인을 찾습니다.

301-275-6533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 풀타임 & 파트타임
-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 이중언어 우대
-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구 인

ENI DIST, INC 사무직
Columbia, MD 위치

- ◎ 구매부 0명
- ◎ 영업지원팀 0명

ERP/Excel 경험자우대

이력서: eni@enidist.com

문의
301-477-4710

LÓTTE Plaza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کم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구 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 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라이선스 교육 가능
-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LA mart

구 인

LA 마트내
볼티모어지점
스페니쉬
베이커리
임대하실분

문의
410-646-1501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금 매 한식+일식 센터빌 VA

- ▶ 연매상 100만+25만
급하게 처리원함
- ▶ 롯데에서 가까운 거리
- ▶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AGENT 환영
443-631-3125
SERIOUS INQUIRIES ONLY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문을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트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전문
- 목수, 타일, 마루, 욕, 캐비닛 샌딩 보수
- 핸디맨, 플러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가스입니다.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Movers LLC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 ◆ 백금(Platinum)
- ◆ K14, K18, Setting 전문
- ◆ G.I.A. E.G.L.다이아몬드 판매
-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판매
- ◆ 각종 보석감정수리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 ◆ 각종 집수리 일체
- ◆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 ◆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정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야기 돌반지팔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홈 플러밍/집수리센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핸디맨

◆ 수도꼭지 교체 ◆ 루핑수리/거러교체
 ◆ 싱크/디스포저 ◆ 사이딩 리페어/창문
 ◆ 워터히터/물새는것 ◆ 데크 수리
 ◆ 하수막힘/변기교체 ◆ 드라이월/페인트
 ◆ 셉퍼프 교체 ◆ 파워워시

24 hours 7days Service
571.594.4080
VA 라이선스/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 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블리티, 워킹스펙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통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 (Luxury Vinyl Tile)
 ● VCT (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멀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임업 멀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멀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멀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이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to be up for (doing or having) something; ~을 하고 싶다
(Dean and his roommates have just finished eating dinner...)
(딘과 룸메이트들이 막 저녁 식사를 마치고...)

Dean: (From the kitchen) Is anyone up for dessert?
딘: (부엌에서) 디저트 먹을 사람?
Tom: I am,
탐: 나,
Matt: What do we have?
맷: 디저트 뭐 있어?
Dean: Let's see. We have apple pie cheese cake and chocolate ice cream.

딘: 어디 보자. 사과 파이 하고 치즈 케익 초콜릿 아이스크림 있다.
Tom: I could go for cheese cake and ice cream.
탐: 난 치즈 케익 하고 아이스크림 먹을까 봐.
Dean: And you Matt?
딘: 맷 너는?
Matt: Make mine apple pie and ice cream.
맷: 난 사과 파이하고 아이스크림 쥐.

Dean: Okay.
딘: 알았어.
기억할만한 표현
▶ ask (someone) out: (누구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다.
"You keep talking about her. Why don't you just ask her out?"
(너 계속 그녀 여자 얘기한다. 그냥 데이트 신청하지

그래.)
▶ Tell me about it: 상대방의 말에 완전히 동감할 때.
Jim: "It's 103 degrees today. Wow, it's hot."
(잠: 오늘 103도야. 아, 덥다.)
Roger: "Tell me about it!" (라저: 정말 그렇다!)
▶ Is (one) seeing anyone?: (누가 누구랑) 사귀어?
"He is good looking, but is he seeing anyone?"
(그 사람 잘 생겼는데 사귀는 사람 있어?)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가로열쇠

(1)아버지나 어머니의 형제. 특히 결혼하지 않은 분을 부르는 말이죠 (2)지구의 대기권 안으로 들어와 빛을 내며 떨어지는 물체. 유성 (4)갑자기 세차게 부는 바람 (5)말의 등에 엮는 도구. 자전거에도 있지요 (6)소리가 산이나 절벽 따위에 부딪쳐 되울림 (7)특별히 하는 일 없이 행패와 난봉을 부리고 돌아다니는 사람 (9)아내의 여자 동생 (10)개나 돼지가 과식을 해서 생기는 병. 배가 붓고 발목이 굽는다 (13)푹고 있는 마음이나 뜻이 하늘을 찌를 듯 높음. □□□□ (15)넓은 바다 가운데 한 알의 좁쌀. 매우 많거나 넓은 것 가운데 섞여 있는 보잘것없는 것을 비유. 창□□□ (18)안방과 건넌방 사이의 마루를 놓을 자리를 흉바닥 그대로 둔 곳. 아저씨는 발을 헛디뎠 ~ 디딤돌에 무릎을 꿇었다 (20)아주 길이가 들어서 몸에 꼭 밴 버릇. ~이 나다 (21)여러 번 거듭하여. 그는 담배를 끊겠다고 ~도 넘게 다짐을 했지만 아직도 끊지 못했다 (23)산중턱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현상 (24)몹시 사나운 짐승 (25)생선이나 고기를 연기에 그슬리면서 말려 익힘. ~ 연어 (26)서로 우열

을 가리기 힘든 형세 (27)밥을 담아 먹는 데 쓰는 작은 그릇

세로열쇠

(1)음력 3월 초사흘날. 머지않아 삼월 ~이 되면 강남 갔던 제비가 날아올 것이다 (2)경관이 좋은 곳에 따로 마련한 집 (3)부부가 각각 자기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 (4)항렬을 나타내기 위해 이름에 공통으로 넣는 글자 (5)마음을 즐기며 조금해한 (8)국물이 있는 음식 속에 들어 있는 국물 이외의 것 (9)소의 반추위 중 세 번째 위. 탄력 있는 식감이 매우 매력적인 요리 재료. 간 ~ 한 접시 (11)금, 은, 백금 등과 같이 값비싼 쇠붙이 (12)울릉도 독도가 있는 바다 (13)가젤, 부엉, 폐회 따위를 선언할 때 탁자를 두드리는 기구 (14)주인에게 충실한 개 (16)혼자서 능히 백 사람을 당함. 매우 용감하거나 능력이 많음 (17)짐승, 특히 소의 네 다리째. 주로 몸을 보신하는 데 쓴다 (19)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산신에게 지내는 제사 (20)술과 달을 사랑한 중국 당나라의 시인 (21)뼈의 중심부에 차 있는 물질 (22)고치 속에 들어 있는 몸 (24)꼭 이루겠다고 굳게 다짐함

스도쿠

1	3	2	8		9			
	5					6	9	8
				5				3
5	6			8				
				4				
		8		3		1	2	5
		9	6				4	
6			1		4		8	
	8							6



자료제공 = 울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9	7	6	3	2	5	1	8	4
8	8	3	4	9	1	5	7	6
2	5	4	8	7	9	6	2	3
5	2	1	9	3	7	8	4	6
7	6	8	5	4	9	3	1	2
6	3	4	1	8	2	7	9	5
3	1	2	7	5	4	9	6	8
8	6	9	2	1	3	4	5	7
4	5	7	6	9	8	2	3	1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EXP. DATE: / month year CVS:	카드 뒷면 3자리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L.A 기타

홀트 식물원
 각종 한국과일
 나무와 씨앗 / 각종모종
 (909)625-4577
 11602 Ramona Ave,
 Chino, CA 91710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모지 급매(주인)
 2차리에 \$9,500(내고가능)
 Glen Abbey Memorial Park내
 무궁화 등산 한인묘소
 위치 좋고, 전망 좋음
 (818)515-0136 Mr. Jung

잘되는 옷수선 전문점
 급귀국 양도매매, 맨하탄버치
 (213)268-9946

koreadailyus.com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Koreadailyus.com은
주류사회에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us.srotech.com
charcoal sadai
친환경탄소복합소재

**건식온돌 난방
진짜가 나타났다**

전통온돌의 우수성을
재현한 조립식
구들장입니다.

너무나 쉬운 설치
시공 영상
시청하세요~
ussrotech.com
지사 및 대리점 모집
문의 510-381-0301

**세계에서 가장 좋은 환경
(Minas Gerais, Brazil)에서 생산된
최상의 품질 Green Própolis**

미국 FDA, Brazil SIF 승인 받은 제품
미국, 귀국 선물용 Wholesale Only (Min.dozen up)
Tel: (213)500-7363

개인 / 비즈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 비즈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헷드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손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잠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아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고혈압, 근본 원인 치료제. 비아그라
시달리스 효과 없는 남성 특효 보강

1-213-703-8809, papaaaa.com

함께한 50년, 함께할 50년

www.koreadaily.com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매달리치아 산삼
9월 햇산삼 세일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홍세일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건산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8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2024 야생 햇산삼을 소비자와 함께 공동 구매합니다.

야생 햇산삼 공동구매

지금저렴한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모든통증 척추간 협착증, 오심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한방병원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심마니 가격 450g 한/정/판/매

	소비자 가격	중간 마진	심마니 가격
중(M)	\$3,500	→ \$1,700	→ \$1,200
대(L)	\$4,800	→ \$2,400	→ \$1,400
특대(XL)	\$5,800	→ \$2,900	→ \$1,800

전립선

온열치료기 J2V-N
www.j2v.co.kr
 전립선암 예방 및 치료 효과
 *30일 전액 환불제 실시

- 가정에서 간편하고 편안하게 경제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 특허청 100대 우수특허대상 (생명공학 부문) 수상
- 경화되고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체를 정상상태로 회복시켜 줍니다.
- 야뇨, 잔뇨, 빈뇨 증상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 약물치료로 효과보지 못하신 분
- J2V 전립선치료기는 안전한 물리적 치료방법으로 부작용이 없습니다.

신제품
전립선 온열치료기 새롭게 나왔습니다.
 치료기능 향상 | 충전량 표시 | 약정화면 향상

드림바이오메디칼 (714)926-4607 7011 Warner Ave #E Huntington Beach CA 92647

당뇨환자와 다이어트에
희소식!

칼로리를 내리는 날씬한
저당밥

40% ~
49%
탄수화물
DOWN

탄수화물은 낮추고
내 몸을 건강하게

당뇨와 다이어트에 좋은 저당밥술 SALE
banustory.com | 213.800.5749

1세대 저당 밥술
New 2세대
스테인리스 304 내솥
직접가열식

정통 모피의 명가

대호모피

65~70% off

2024년 10월 30일~ 11월 6일

시즌 특별 사은 초특가 세일

연령대와 관계없이 함께 할 수 있는 대호모피!
2025년 신상품과 함께 겨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최상급 캐시미어와 100%극세사 울을 밉크와 조합한 고품질 모피를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그 외 많은 콤비네이션 신상품을 선보이겠습니다.

Special 가격 파괴 상품

렉스&캐시미어 조끼		\$490
신개념 니트밍크 자켓	\$5,900	\$790
신개념 니트밍크 하프	\$6,290	\$1,190
패션밍크 롱조끼	\$5,980	\$980
패션밍크 후드 하프코트	\$7,290	\$1,490
풀스킨 밉크 조끼	\$8,200	\$1,690
풀스킨 하프 코트	\$11,900	\$2,490
풀스킨 밉크 롱코트	\$13,000	\$3,490

〈 특별 사은품 〉

- 3,000불 이상 구매 고객 : 실버폭스카라 구스 자켓
- 2,000불 이상 구매 고객 : 새로운 개념의 무스탕 자켓
- 1,000불 이상 구매 고객 : Fox 목도리



애난데일 행사장

일시 : 10월 30일~ 11월 6일까지

장소 : 타마 여성복 매장 1층(꿀돼지 건너편)

주소 : 7224 Columbia Pike. Annandale, VA 22003

시간 : 오전 11시~ 오후 7시까지

전화 : 718-578-3911